

한국예술 종합학교 신문

2016.5.23.
제265호

1면: 크누아에경포럼

2-3면: 졸준위 둘러싼 전·현 총학생회의 공방전

4면: 교내 Wifi 왜 안잡하나 / 학사경고 기준은?

5면: 진 졸준위 위원장 칼럼 외

6면: 프라임 사업 21개 대학 선정 논란

7면: 신입교원인터뷰(3) : 하승우

8면: 영상원 실험실습비는 어디로

9면: 졸업 비용은 누가 내나요

10면: 졸업생들의 예술창작집단 현황

11면: 영화 <사돈의 팔촌> 장현상 감독 인터뷰

12면: 이주의 사회 / 젠더 이슈 칼럼

13면: 독일낭만주의란 무엇인가(2)

14면: 희극성에 대하여(1) / 비디오 게임 비평(3)

15면: 이주의 DVD, 도서관 자료

16면: 학생 칼럼 / Cover Story

발행인

주간교수

편집인

주소

창간

전자메일

누리집

김봉원

우광혁

이상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관 2층

1996년 11월 28일

newskarts@gmail.com

news.karts.ac.kr



끝나지 않는 공방

황 회장 “결산 미흡·렌트카 사고처리·졸준위 문제, 사과하라”

선 전(前)회장 “사과해야 할 부분은, 결산 문제뿐”

지난 13일, 제20대 총학생회장 황예정(음악원 기악과) 씨[이하 ‘황 회장’]가 학내포털사이트 누리에 “19대 총학생회 결산감사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제20대 총학생회는 지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제19대 총학생회가 불명확한 결산안 발표를 한 것과 이와 관련되어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19대 총학생회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제20대 총학생회가 지적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제19대 총학생회가 임기 내 결산을 완료하지 못한 것 △제19대 총학생회의 2016년도 오리엔테이션 결산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및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지난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

준위’]의 결산안 심사 미흡 진행으로, 지난 제19대 총학생회의 과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제19대 총학생회장 선승범(영상원 영상이론과) 씨[이하 ‘선 전회장’]는 15일 누리에 ‘아래 황예정 회장 게시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게시했다. 선 전회장은 “2015학년도 결산안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었던 점과 “통장 정리와 회계 업무의 인수인계가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19대 총학생회가 “2016년 초 제20대 총학생회가 선출되기 전까지 충분히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일부 사안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학생회 비로 지출한 렌터카 수리 비용 지출에

관해서는 이미 밝힌 의견에서 달리 덧붙일 것이 없으며, “행사 목적으로 운용되던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 전회장은 졸준위 결산 심사 진행 미흡에 관해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지급한 수당의 적정성 여부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수당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졸업준비위원회는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학생회 소속 기구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황 회장을 포함한 김예지 현 부총학생회장,

신소영 현 음악원 학생회장이 2015학년도 2학기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규정을 제정하던 2015년 2학기 전학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총학생회 예산의 일부를 졸준위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다가 “이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 전 회장은 제20대 총학생회가 이번 입장표명을 통해 지난 졸준위의 결산안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들기 시작한다면” 19대 운영위원회 의원이었던 제20대 총학생회 일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전학대회 이후로 위의 세 가지 사안은 미해결 문제로 남았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2016년 신입생 OT 진행중 렌트카 사고건은 처리

비용 전액을 오티 진행비에서 지출한 것이 큰 논란이었다. 또한 제20대 총학생회가 세 번째 사안으로 언급한 “졸업준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에서 지난 졸준위에게 지급된 수당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총학생회비에서 졸준위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두 개의 사안에 대한 제19대 총학생회와 제20대 총학생회의 의견과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 항목들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19대 총학생회의 결산안 인수인계 과정의 사실관계여부

첫 번째로 언급된 제19대 총학의 임기 내에 결산을 완료하지 못한 사안은 19대 총학생회가 총학생회비 및 OT 통장정리와 결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고, 20대 총학생회가 인수인계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제20대 총학생회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제20대 총학생회의 공식 승인일은 2016년 4월

21일이었으나 19대 총학생회가 인수인계를 5월 9일까지 인계하지 않아 “20대 총학생회 출범식 진행비 및 원학생회 분배금 지급 등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제20대 총학생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제20대 총학생회의 주장과 달리, 정소이 제19대 총학생회 사무복

지국장은 지난 4월 29일 ‘19대 총학생회 수정 결산안을 올립니다’ 제목으로 해명글과 결산안 엑셀파일을 누리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서 정소이 전 사무복지국장은 4월 전학대회에서 지적 받은 바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관련 인수인계가 지체된 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제19대 총학생회는 결산안과 예산을 포함한 사무회계 관련 인수인계를 제20대 총학생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전학대회에서 많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 제20대 총학생회와 원학생회는 임의로 지난 해의 자료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이었으나 전학대회에 참여한 제19대 총학생회는 현장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6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렌트카 사고 처리 비용의 문제

2016년 렌트카 사고처리건에 관해 제20대 총학생회는 입장표명을 통해 “제19대 총학생회가 렌트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들지 않았고” “139만원의 비용이 청구”된 점과 “제19대 총학생회가 “지난 9월 축제에서도 보험을 들지 않았”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던 것을 지적했다. 이에 선 전회장은

답변을 통해 “자차보험을 든다고 해도 모든 사고가 전적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렌트카 업체에선 자차보험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류를 지적했다. 덧붙여 “행사 목적으로 운용되던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입생 OT에서 일어난 렌트카 사고는 청구된 수리비용 139만원을 학생회비로 지출했다는 지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운영및지도규정」 제8조(재정)에 따르면 “회비의 책정, 수납, 지출 및 경비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학생

회칙에 따른다. ③학교는 회비가 학생회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학생회비는 학생회 판단 하에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19대 총학생회가 두 번의 커다란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 사

안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다. 제20대 총학생회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위와 같은 과실과 실수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입장표명과 답변 게시과정에서 빛은 공방의 방향은?

13일 제20대 총학생회의 입장표명 게시를 시작으로 15일 선승범 전회장이 답변을 게시했고 연이어 17일 졸업준비위원장 이수민 씨가 답변을 게시했다. 선 전회장은 답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19대 총학생회가 사과해야 할 부분은, 2015년도의 결산안 완성과 인수인계가 늦어졌다는 것 뿐입

니다’ 등 명확한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앞으로 “사과와 해명하는 일은 없을 것”을 밝히고, 제20대 총학생회에게 “학교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에 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든지”, “고소·고발 내지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등 입장 표명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이에 정의진 사무국장

은 “오~”라는 댓글을 달았고, 강덕구 전 정책집행국장과 임종우(영상원 영상이론과) 씨가 정의진 사무국장의 태도에 항의했다.

선 전회장은 계속되는 갈등과 공방에 대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제20대 학생회가 본인들의 사업을 올 한해 잘 꾸려나가길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바랄 뿐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바쁜 일정과 기상조를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졸업준비위원회 결산안 공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위는 황 회장이 지난 5월 13일 누리에 게시한 “19대 총학생회 결산 감사 입장표명”에서 2015년도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결산안 심사 건에 대해 제기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졸준위의 임금 과다 책정, 지원금에 대한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이수민 전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이 전위원장”)은 이에 답변을 누리에 게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제20대 총학생회에서 졸준위의 임금과 디자인비에,”

“졸업준비위원회칙 제4조 2절 22조에는 장학금 또는 사업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졸준위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 졸준위는 초기 사업비 5,296만원의 15% 이내에서 매 학기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분명한 회칙으로 인한 해석의 문제라고 답했지만, 이들이 가져간 1,276

일련의 맥락들을 무시한 채 금액의 숫자만 강조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졸준위 임금은 졸준위회칙 자체가 많은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에 회칙

만원은 초기 사업비의 약 24% 정도(중략)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는 근거 없는 지출입니다.”

“2014년 졸준위 수당이 2015년에 지급되었던 것과 재학생에게 500만원이라는 디자인비가 지급되었던 것, 결산안에 확인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

수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졸준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졸준위회칙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한 것은 “명백히 졸업준비위원회가 처한 고질적인 구조의 문제이지 단순

어 있던 것 등 전반적인 졸준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9대 총학생회장은 졸업준비운영위원회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학생회에서 졸업준비위원회 지원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지출했음에도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히 전년도(2015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500만원이라는 디자인비에 대한 의혹?

이 전위원장이 답변 글과 함께 첨부한 결산 파일에 따르면 디자인비 500만원은 총 5명에게 지급이 되었다. 이 5명은 ‘여지스튜디오’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졸준위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

하고 선정했다. 이들 5명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00여명의 사진을 보정 편집 촬영 보조업무를 맡았고, 이들 1인당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다. 임금에 대

한 뚜렷한 기준을 잡기 모호했기 때문에 업계 일반 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책정한 결과, 이들은 1개월 간 최저지급과 비교해도 적은 액수인 125,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열정페

이’가 난무하는 가운데, 총학생회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 대신” 임금 과다 책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슬픔을 토로했다.

제19대 총학생회가 졸업준비위원회에 지원한 39만원과 영감다방

전 졸준위는 제19대 총학생회에 영감다방을 스튜디오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졸업앨범을 자체제작하기로 결정했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스튜디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향후 여러 목적으로 촬영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스튜디오로서도 기능할 것이란 판단 하에 지난 2015년 7월 27일, 제19대 총학생회와 원학생회는 이 제안

에 협의를 거쳤다. 스튜디오로 전환된 영감다방에 사용할 80만원 가량의 최소한의 기자재가 필요했다. 선 전 회장, 김수인 전 부회장, 김예지 현 부총학생회장(당시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비 구입 금액의 절반을 총학생회와 나눠 지불했다. 그 금액이 바로 문제의 39만원인 것이다. 실제로 졸업 촬영이후 2015년도 졸준위,

제19대 총학생회 그리고 원학생회의 초기 목적과 방향에 맞게 몇몇 학과에서 영감다방 장비들을 이용해 프로필 촬영을 진행했다.

이 전(前)위원장은 지난 전학대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2014년도 졸준위 사고처리 과정 지연에 따라 2015년까지 활동이 회계 상에서 중복된 점,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던 부분에 대해

재차 설명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두 개의 통장을 각각 나눠 갖고 있는 상태가 회계 상의 문제 원인이었던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학대회에서 발표한 결산안에서 이 두 개의 통장과 2014년도 졸준위가 집행했던 내역을 물음표로 처리했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회칙을 바꾸고 그것을

알리지 않은 점”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제19대 총학생회는 졸준위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 전회장과 큰 사안들을 협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제20대 총학생회가 밝힌 “제19대 총학생회는 졸준위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척 변동과 차기 졸업준비위원장 선출과정

이 전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2014년도 졸준위 비상대책위원장 한대호 씨(영상인 영상이론과)와 협력해 세척을 변경했다. 이후에는 선 전회장과 차기 졸준위원장 선출에 대해 협의했으나 구성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근 2년간 참석자 0명) 졸준위원장으로 지원자가 없었다. 이 전위원장과 선 전회장은

이 문제를 의식해 선출방식을 ‘지명 선출’로 변경하고 ‘소급 적용’을 통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 전회장이 이 사항을 제20대 총학생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사안을 공방으로 이어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 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지명 선출 이후 2016년 3월 10일 인수인계를 마친 후 세척에 언급된 ‘성공보수’권을 논

의했다. 차기 위원장의 판단 하에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성회의에서 황 회장은 소급적용에 매우 반대했지만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총학생회의 한국에서 졸준위 업무를 맡을 의향이 있는 곳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이 전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고, 졸준위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반대했다. 졸준위가 가장 빠르게 활동하는 시기와 총학생회가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가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이다. 지명 선출된 차기 졸준위원장은 사임한 상태다.

1차 구성회의에서 가장 큰 사안은 졸업앨범 제작이 아예 무산이 되는 것이었

다. 이어 열린 2차 구성회의에서도 논의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2016년 5월 21일 기준) 황 회장은 총학생회가 졸준위 인수인계 받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 졸업앨범 신청을 취소한 학생들에 대한 1차 졸업준비금 환복은 5월 말에 완료되어야만 한다.

2차 구성회의 무산 이후 2016 졸준위의 방향은?

총학생회가 졸준위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논의되어야 할 것은 ‘졸준위 세척을 총학생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졸준위회칙은 기본적으로 졸준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대전제 하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회칙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총학생회 내부로 들어간다면 졸준위는 독립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회칙을 어떻게 변동하고 적용할 것인가이다. 예산관리와 운영문제, 임금 적용문제에 대해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졸준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2학기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전위원장은 이에 대해 “완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15년도의 경우, 한대호 2014 졸준위 비대위장과 박태일 2014, 2015 졸준위 부위원장이 14년도 이전의 졸준위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2달간 졸준위회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차후 수정과 보완이 필요했다. 이 전위원장은 졸준위 상황을 인지하지 않은 “총학생회가 어떻게 졸준위 회칙의 변수를 고민해 5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과 염려를 표했다.

독립기구였던 졸준위는 지난 2015년도를 포함해 많은 변수를 거치며 사업을 운영해왔다. 2015년도 졸준위는 기존의 낡은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자체 제작’, ‘공간활용’ 등을 창안해냈다. 이 전위원장은 “회칙 변경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점은 큰 과실이라 인정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2016년도 졸준위가 처리할 사업들이 예년보다 많이 놓여있는데, 현 총학생회가 앞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더 나아갈 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졸준위 회칙은 분명 앞

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회칙을 마련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부디 제20대 총학생회에서 이 점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염려와 바람을 전했다.

지난 5월 9일 2016학년도 졸업준비위원회 2차 구성회의는 무산되었다. 2014, 2015년도 전 졸준위 일정에 따르면 5월은 졸준위는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제20대 총학생회는 졸준위를 인수한 과정 이후로 2015년도 졸준위로부터 인수인계

는 물론, 환불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6년도 졸업앨범이 무사히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20대 총학생회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소희 기자

gumble.em@gmail.com

WiFi 5G게 안 잡히죠?

자꾸만 튕기는 와이파이... 해결책은 안 쓸 때 끄는 방법 뿐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학내포털 사이트 누리와 무선랜 접속이 중단된 적이 있다. 누리 사이트 접속은 10시간이 지난 오후 8시부터 가능해졌고, 무선랜 연결은 오후 4시부터 복구되기 시작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서비스 중단에 학생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준수 정보관리팀 주무관은 “점검이 있을 시엔 반드시 공지하고 되도록 야간에 작업”하지만 “당일은 서버 보드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나간 경우라 도리가 없었다”며 미리 공지하지 못한 당시의 긴박함을 밝혔다. 서버 오류의 해프닝 뿐만 아니라, 교내 무선 랜 이용에 학생들은 사소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우리학교 무선랜은 왜 불안정할까?

우리학교 무선랜 'KARTS_WLAN'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IEEE 802.11 n 규격의 4G 와이파이와 작년 12월에 지원된 IEEE 802.11 ac 규격의 5G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 n 규격은 150Mbps에서 최대 300M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다중 고선명 텔레비전(HDTV),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등 높은 대역폭의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무선 랜이다. ac 규격은 최대 433Mbps의 기가급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어 '기가 와이파이'로 불리기도 한다. 또 다른 무선랜 'KARTS_

Wireless Internet'은 최초 사용자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는 서버다. 연결하고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면 안내 페이지에 자동적으로 링크된다. 이를 통해 사용 방법을 안내 받거나 사용자 기기의 OS에 맞는 프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처음 무선랜 사용시, 우선적으로 'KARTS_Wireless Internet'에 연결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학교의 무선 AP 기기는 총 293대가 설치돼 있다. 천장관 103대 △강의동 64대 △미술원신관 42대 △서초동 24대 △도서관동 15대 △본관동 10대 △공방동 9대 △전통원연습실 5대 △전통문화연습동 4대 △대학로캠퍼스 4대 △철북공실 4대 △학생회관동 4대 △전문사동 3대 △극장동 1대 △연희실습실 1대로 구성된다.

AP 기기 한 대 당 최대 30명의 기기를 수용할 수 있지만 15명 내외가 제일 원활하다. 무선랜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는 AP 기기의 수용량 초과다. 특히 강의실처럼 학생들이 운집하는 공간에서 사용자든 비사용자든 와이파이를 켜놓는 경우가 많아 접속이 초과해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물론 수용량이 많은 AP 기기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전 주무관은 “AP 기기를 바꾸고 싶어도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되도

록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와이파이를 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간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미술원의 경우, AP 기기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벽이 두껍거나 방이 겹겹이 이루어진 구조 때문에 기기의 수용 범위가 닿지 못하는 곳이

생겨, 무선랜 이용에 불편이 생기기도 했다. 전 주무관은 “AP 기기 위치를 옮겨서 해결은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디자인이나 건축과의 경우, 공간이 통으로 개방된 구조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AP 수용 폭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어서 제기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트래픽 초과다. 많은 학생들이 밤이나 새벽 시간에 와이파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김도연 씨(연극원 무대미술과)는 “새벽에 과실에서 과제를 하는데 와이파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핫스팟을 켜”며 불편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주무관은 “새벽 중에는 2~3초 동안 와이파이를 자동 리부팅하고 있을 뿐 오히려 연결이 원활한 게 정상”이라며 “물론 정보관리실에 올라오는 트래픽 사용을 보면 밤 시간에 토렌트·P2P사용이 많아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순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관리실 직원은 “토렌트 자료가 기가급이라서 우리 학교 대역폭 300메가를

다 써버린다”며 “토렌트 사용을 막으려 해도 우회로 빠져나간다”고 전했다.

정보관리실 측은 정기 점검과 세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학기 중엔 매월마다 AP 기기의 신호 상태를 살펴보고 있고, 방학 중엔 직접 신호 테스트기를 들고 모든 AP 기기를 한 대씩 순찰하고 있다. 전 주무관은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고장이 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불편을 느낀 학생들은 정보관리실로 직접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편 사항이 정보관리실로 직접 접수되기보다 교수 협의회의 안건 등 공론화로 이어지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에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대한의 해결이라도 예산의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홍 기자

rmfhd1218@gmail.com

학사경고, 대학 생활 적신호

평균 2.4 미만, 3과목 이상 F...3회 누적은 제적

'학사경고'란 “학생이 일정 수준의 평점을 이수하지 못할 때 학교에서 내리는 경고”를 뜻한다. 학사경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시 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예술사는 한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4점에 미달되거나 3개 교과목 이상이 F인 자에게 학사경고가 부과되고, 예술전문사 과정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6학점 이상 수강 시) 한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4점에 미달되거나 2과목 이상이 F인 자가 학사경고의 대상이 된다.

학사경고에 따른 불이익 중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적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칙」의 제 6장(제적,퇴학) 제37조(제적)에 따르면 “예술사과정 학생으로서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예술전문사과정 학생으로서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경우 제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적이 아니더라도 학사경고에 따른 불이익은 꽤 많다. 가장 먼저 다음 학기의 수강가능학점이 제한된다. 그 다음으로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장학금 규정’에 의해 학사경고 처분을 받으면 장학금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천장관(신길관 포함)규정’에는 신입생을 제외

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4점 이하인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학사경고 자체만으로도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후에 학적부가 필요한 경우 학적부 내에는 학사경고 기록이 남게 된다.

학사경고는 비단 우리학교에만 있는 학사제도가 아니다. 타대학의 학사경고 처분 절차 역시 비슷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에 미달된 자”와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준다. 서울대학교는 “학사경고 4회 누적 시 학사제적”처리가 되도록 하며, “각 대학의 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3학점, 연속하여 합계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6학점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상한학점에서 [제이수과목 학점을 제외하고] 하향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성적경고 제도는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에게 통지한다.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3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하며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에도 성적경고를 부과하지만 해당 성적경고는 제적과 직결되는 성적경고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사경고의 기준은 비슷하나 지난해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학사경고 1회시 지도교수 상담 진행, 2회시 사유서 제출 및 학생생활연구소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 3회시에는 학부모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1회 이상 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은 교수개발학습센터로 넘어가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 “특별지도”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평점 1.0점에서 2.0점 사이를 학사경고 커트라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는 평점 1.6점 미만, 서울예술대학교는 평점 1.0점 미만, 성균관대학교는 1.75점 미만, 서강대학교는 평점 2.0점 미만일 경우에 각각 학사경고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학교의 학사경고 부과 기준은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이는 상대평가로 성적을 책정하는 타 대학과 달리 우리학교는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기기 때문이다.

예술사 과정 2학년 2학기에 학사경고 1회를 받은 익명의 모 씨(연극원 극작과 졸업생)는 “2학년 중반부터 슬럼프가 찾아와 학교 생활에 소홀해졌다”

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그 학기 2.38점으로 이슬아슬하게 학사경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모 씨는 “조기졸업을 희망하지 않았고 기숙사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사경고 이후 생활이 달라지거나 불이익을 받은 점은 없었”으나 “나를 재정비하게 되어 졸업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모 씨는 학사경고에 대해 “1회까지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2회부터는 압박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학사경고 이후 오히려 진로의 방향을 바꾼 이도 있었다. 학사경고 2회를 받고 최근 학교를 자퇴한 안모 씨는 “[학사경고 제도 자체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학사경고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조울증이 심해서 수업에 나가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현재는 자퇴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제 곧 성적 열람을 할 신입생들과 학사경고의 테드라인에 놓인 학생들에게 안 씨는 “학교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이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그래도 [자신의 학과는] 배려를 많이 해 주는 편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정신질환을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로 치환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정

신질환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변화”에 관한 문제성을 제기했다.

원래 우리학교의 학사경고 처분 기준은 “2.7점 미만”이었으나 2004년 6월 학칙개정으로 인해 2.4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학사경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과 이선미 행정조교는 “우수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경고 기준을 2.7로 정하였으나 타교와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가해질 학사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교는 실제 “2015년도의 경우 1학기에 예술사 90명, 전문사 18명”, “2학기에 예술사 94명, 전문사 8명”의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처분에 관해서는 2015년도의 경우 1학기에 예술사 5명, 전문사 0명”, “2학기에 예술사 8명, 전문사 1명”의 학생들이 제적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교는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후에는 처분내역을 정정할 수 없”기에 “학사경고를 받지 않도록 출석 등 본인의 성적확인은 반드시 성적 확정 전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석 기자

novelp100@gmail.com

안전한 학교생활, 석관파출소와 함께!

학내에서의 절도·성추행·성폭력·폭력, 이제 안녕

지난 5월 19일 오후 5시 30분, 석관파출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서울중앙경찰서 석관파출소 사이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총학생회와 파출소가 학내에서의 각종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서에는 파출소와 한예중 학내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매일 3회(주간·야간·심야) 이상 112 순찰차량을 통한 순찰을 실시 △한예중 학내에서의 절도·성추행·성폭력·폭력 등 각종 범죄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의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한예중 학내 및 관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에 신속히 출동하여 대응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연계 상담센터 알선·쉼터 제공·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 등의 노력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 학생이동 행사 시 112신고 출

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차원에서 서울시계 등 적의지점까지 112순찰차량으로 에스코트를 지원 △범죄로부터의 신변보호 등을 위해 학생의 귀가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112순찰차량을 통한 귀가 지원에 적극 협조로 파출소의 역할 등이 명시되었다. 또한 업무협약서에는 학내에서는 물론 학교 인근 석관동 일대 주점, 음식점 등지에서 폭력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파출소에서 주관하는 기초질서, 교통질서, 아동학대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學[학]·警[경] 합동캠페인」 행사 등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으로 총학생회의 역할도 함께 명시되었다.

한편 우리학교만 경찰서와 업무협약체결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13일, 대전서부경찰서와 목원대학교 역시 성폭력 등 대학 내 범죄예방과 건전한 캠퍼스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다만 타 대학들은 학과장이나 교수 등이 협약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 일을 추진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서 황예정 총학생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석관파출소가 교내외에서의 각종 범죄 예방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약을 맺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파출소장 김재선 경감님과 학생과장님,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굴 기자

kyulp123@gmail.com



△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석관파출소장 김재선 경감과 황예정 학생회장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문제들

졸업준비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학생 칼럼

나는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 사실 직함이 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임시직이자, 학생회칙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직책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대위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본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사회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승인된 졸준위가 존재한 적은 2015년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 졸준위는 총학생회장이나 그 측근이 임의로 지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것이 암묵적인 관례였다.

그렇기에 그 이전까지의 회계자료를 비롯한 활동내역은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심지어 어떤 해는 총액이 마이너스로 정산이 된 채로 다음 연도 회계로 이월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3학년도 졸업준비위원장 김찬혁(미술원 건축과) 씨는 2014학년도 학기 초에 6개월 각 과의 졸업준비자 대표를 선임해서 내부 회칙과 졸업준비자격을 갖춘 학우들 중에서 그 대표자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해보았지만, 저마다의 사정과 여러 학우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 회의는 '졸업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만을 남겼고, 비대위는 해체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 2015학년도 졸업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민 전 졸업준비위원장(미술원 미술이론과)은 총학생회와 더불어 2015학년도 2학기 전학대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준비위원회 회칙」을 안건으로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16

학년도 1학기 전학대회에서 졸준위 회계 자료 및 그간의 활동내역을 심사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에 대해 학내에는 몇 가지 논란이 있었고, 졸준위 자체에 대한 여러 의구심과 비판이 생겨났다. 이 비판은 일정 부분 합당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이나 표면적으로 사실을 판명하기 어려운 금전적인 문제에 주로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본교 졸준위를 향해 할 비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동안 본교 졸업준비사업은 대체로 졸업앨범제작이나, 이에 대한 대행사업에 주로 치중되어 있었다. 2013학년도 호박별연합(학내 협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직접 제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졸준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앨범 제작을 추진했었다. 이는 1부당 1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미리 전체 부수를 정해서 외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변화는 2013학년도에 호박별연합이 앨범 사업을 맡으면서 학내 제작이 이뤄지며 일어났다. 그 이후 2015학년도까지 꾸준히 학내에서 앨범 제작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작방식은 앨범의 품질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배송 지연, 임금 문제 등과 같이, 지금껏 여러 논란을 낳곤 하였다.

이는 첫번 째로 졸준위 회계의 결산되지 못한 '미환불 졸업준비금' 문제에서부터 발생한다. 이전 2015학년도 졸준위는 그동안 개교 이래 여태 환불 해주지 못한 미환불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었다. 해마다 간간

히 몇 명씩 환불해주거나, 자신이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며 전년도나 그 이전에 결산되지 못한 환불금이 환불된 경우가 있지만, 사실 2015년에 발의된 회칙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해야 한다. 「졸업준비위원회 회칙」 제 26조 4항에서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월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환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이월 신청을 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니, 2015년 이후로 당해에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의 회계로 이월됨이 옳다. 만약에 졸준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학교 발전기금이나 여타 장학금 등으로 공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태 졸준위는 대체로 입금사실 입증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해왔지만, 이 비용은 당해의 졸업준비금을 낸 학생의 돈으로 엉뚱한 연도에 졸업준비금을 낸 학우의 졸업금을 환불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이다. 이러한 '미환불 이월 졸업금'은 졸준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악순환계산은 차년도 사업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제대로 된 예산 산정이 어려워 임금부터 시작해서 앨범 제작에 매진해야 할 예산까지 그때그때 새로 편성해야 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깔끔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은 어렵다.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다면 학생 사회에서 근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두번 째로 학생 사회의 비협조적이

고 무관심한 분위기이다. 2014년도 자생적인 졸준위 구성이 무산된 것과 더불어 2015년도 음악원이 졸준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통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각 학과 임원들과 같은 학생 대표자들도 이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본부조차도 졸준위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단만 입금할 뿐 이후의 사후처리나 졸준위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절차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전학대회에서 논란이 된 졸준위 임원의 임금 역시도, 다른 학생자치기구처럼 총무과나 본부를 통해서 고지서상 장학금이나 학칙에 규정된 금액으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과 절차의 문제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 돌려서 생각해보면 2015학년도 졸준위원회 임원들을 제외하면 그동안의 졸준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얼마를 받아갔는지 누구도 묻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졸업준비사업이 어떤 지향성 없이 앨범 제작사업만 치중하게 되는 것 역시도 학생 사회에서 아무런 요구나 의구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에 대해 수동적인 학내 문화는 사실상 이와 같은 전횡과 무법지대를 방관한 것이나 다를

이 없다. 위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서 임시방편으로 누군가 이 난국을 수습하거나, 어떻게 졸업앨범을 제작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건전한 회계 문제와 졸업대상자들과 본부의 무관심

과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어떤 방안을 내놓거나 회칙 수정을 가한다면 졸준위는 모두가 꺼려하는 악성 민원의 창구만 될 뿐이다.

이런 난맥상에서 우리가 묻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의 무관심했던 학생 자치에 대한 자성과 더불어 앞으로 개정해야 할 회칙, 그리고 졸업준비자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졸업준비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졸업준비사업이 단순히 앨범을 제작하고 대행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졸업준비자가 원하는 유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를 탐색을 돕고, 졸업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타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졸업준비위원회가 총학생회와는 별개로 선분으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실 이러한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학생 자치는 진정 졸준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도 같다.

이러한 비판과 자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학생회나 다른 주체가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맡아 앨범 사업을 진행한다면, 학생 사회가 맞이할 것은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이자, 학생 사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확인하는 비극적인 파국의 순간뿐일 것이다.

한대호

영상원 영상이론

대학이 기업의 하청업 체인가요?

프라임 사업 21개 대학 선정... 기업 수요 중심의 구조조정 논란 끊이지 않는 학생들의 반발과 프라임 후유증

지난 5월 3일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을 발표했다. 75개 대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수도권 5개교(건국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ERICA)와 비수도권 16개교(경북대, 상명대, 원광대 등)가 최종 발탁되었다. 프라임 사업의 강력 후보였던 경희대, 중앙대 등 여러 수도권 대학들이 낙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모집 전부터 수많은 대학이 프라임 사업에 뽑히기 위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근시안적 처방이라는 평가와 함께 작년과 올해에 걸쳐 대학가에 크고 작은 반발이 일었다. 지금까지도 탈락 대학들의 후유증과 구조조정에 따른 입시 변화로 교육계가 혼란을 치르고 있다.

프라임 사업이란

‘프라임(PRIME)’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의 약자로, 일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대학의 인력 배출과 기업의 인력 수요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 사회 수요 중심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작년 1월에 발표한 이 사업은 대학 관계자와의 간담회와 산업계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작년 말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선정 대학을 모집했다. 사업 진행 기간은 3년이며 총 6,000억 원을 투자해 대학별로 최소 50억 원,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한다.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사회 수요에 중점을 둔 학과 조정이다. 교육부는 취업률이 높은 공학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자연·예술계 정원을 줄이기 위해 정원 5,300여 명의 대대적인 이동을 계획했다. 따라서 프라임 산업 선정 대학들에서는 인문계열 2,626명, 자연과학계열 1,479명, 예체능계열 819명이 주는 대신 공학계열은 4,856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선정된 21곳 대학에서 현재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정되지 못한 몇몇 대학에서도 제출했던 사업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통 부재, 교육권 침해, 학생들 반발 커져

수직적인 구조 조정과 소통 부재는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국민대의 경우, 전체 모집 정원의 5%인 145명의 정원 이동을 계획해 대대적인 학과 조정에 나

선 바 있다. 문과 대학의 명칭을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으로 변경하거나, 국어국문학과와 글로벌한국학전공을 통합해 ‘한국어문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지난 4월 9일·16일 두 차례 공고했다. 국민대 학생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문제는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총장의 부정 연임 논란으로 학교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가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총장 부정 연임 규탄 및 통보식 구조조정 반대 선언식’을 시작으로 4월 22일에는 800여 명의 학생이 운동장에서 학교 본부까지 시위행진을 벌이거나, 이후 총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강행하기도 했다.

경희대의 경우 작년 12월 1일, 융복합 학과 신설 논의가 물의를 일으켰다. 경희대 부총장이 국문학과와 전자전과 공학과를 통합해 웹툰창작학과를 개설한다는 황당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방식의 융복합학과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울뿐더러 학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프라임 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졸속 추진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될 뿐”이고 “철사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3년 뒤면 지원이 끊겨” 신설 학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웹툰창작학과 개설 논란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도 뜨거웠다. “총장님이 포켓몬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다”, “대학 관료 측이 생각하는 풀이 과정을 듣고 싶다”는 등 당혹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와 프라임 사업의 기능에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학생들의 항의는 곳곳에서 내외적으로 일어났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4월 5일, 학교 정문 앞에 근조 화환 20개를 내걸어 사업 중단을 강력히 주장했다. 화환 위에 “고(故) 이화의 명복을 빕니다”, “3월 31일 프라임으로 이화 사망” 등의 항의 글을 적어 놓으며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이화여대와 서울대 등 11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학을 망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을 중단하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대학은 기업의 하청 업체가 아니”라며 “교육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을 대학과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항의했다.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조정 대상이 된] 학생들이 학문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

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성과주의 정책이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와 취업을 상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각광 산업인 ICT와 소프트웨어 등 공업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 개편의 방향은 공학 분야 신설이나 공학 분야와 타 분야의 융합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백성기 프라임평가위원장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2023년까지 취업률을 평균 약 7.7%까지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다”며 21곳의 선정 대학을 매년 점검하여 운영 부실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업 계열 중심의 학과 개편이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프라임 신설 학과들이 산업 수요 흐름에 들어맞으리란 보장도 없을 뿐더러, 공업 분야 증원으로 오히려 공급 과잉 사태 우려가 생겨난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이뤄진 구조조정이다보니 신설 학과들이 명색만 갖추고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학과를 합치거나 새로운 학과를 개설해 ‘IT’, ‘융합’, ‘스마트’ 등의 용어를 집어넣었을 뿐 실질적인 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이 곳곳이 막대한 프라임 지원금에 눈이 팔려 장기적인 안목을 잃었다. 대학들은 프라임 사업 선정 조건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학과 조정에 나섰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춰 대학을 재단하는 것은 교육을 취업을 위한 도구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취업 전문 학교로 육성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프라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사업의 후유증

프라임 사업에 탈락한 나머지 50여 곳의 대학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추진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일부 대학은 프라임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프라임 사업 탈락 이후 교수와 학생에게 “스스로 변신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황당한 이메일을 발송하며 구조조정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구조조정 내용은 문과대와 사범대를 감원하고 공대와 경영대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 탈락시 사퇴하겠다는 총장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의 반발이 극심해졌다.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민주적 학교 운영을 요구하다 무기한 단식 투쟁 끝에 신장 통증으로 쓰러져 입원했고, 문과대 9개 학과의 학과장직을 수행하던 교수 전원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재직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을 더 이상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지 말라”며 “학교를 운영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프라임 사업의 파장은 대학가뿐 아니라 입시 환경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프라임 사업의 조정 인원은 5,351명이다. 이는 전체 입학 정원 4만 8,805명 중 약 11%로 2017학년도 입학 정원에 즉시 반영된다. 구조조정의 감축 인원 중 인문 사회 분야가 49%이고, 증가 인원 중 공학 분야가 90.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편향적인 학과 조정은 2017학년도 입시를 앞둔 문과 수험생들의 대입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선정 대학들은 9월 수시 입시 전까지 입시 요강을 수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갈피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학교와 프라임 사업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인 우리학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구조조정의 위협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은 바가 멀지 않은 과

거에 있었다. 2008년 문체부는 학교를 감사해 통섭 교육 중지 및 관련 교수 정계 포함 이론과 축소 및 폐지, 서사창과 과 폐지 등 총 12건의 경고 및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258호 <통섭대신 간섭, ‘맞춤형’ 정권 예술의 역사> 참고) 이번 프라임 사업으로 신라대에서 무용과가 폐지되었고, 건국대에서 영화과가 통합되는 등 종합대 내 예술 계열들이 구조조정의 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우리학교가 예술 학교라는 전문성 뒤에서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다.

김홍 기자

rmfhd1218@gmail.com



△ 국문학과 + 전자전파공학과 = 웹툰창작학과? ©출처-국민TV

신임교원인터뷰 (3)

: 하승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이런 당위를 말하며 감동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는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것은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상을 똑바로 바라보면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학생이 아니었다. 학생은 4년이 지나면 학교를 떠나지만 교원들은 은퇴 전까지 10년, 20년 이상 학교에 남는다. 어쩌면 학교를 이끌어 가는 데에 학생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는 쪽은 교원이기도 하다. 지난 학기, 우리학교는 8명의 교원을 새롭게 임용했다. 이들의 생각과 계획, 의지를 통해 학교의 환경은 상당히 변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신문은 ‘신임교원인터뷰’를 기획하면서 그들과 직접 만나, 특별히 학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이 그리는 청사진에 주목해보면, 우리학교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현상이 쏟아지면 언어는 이를 명료화한다. 이론은 때면 한 발 늦게 도착한다. 모두가 현상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갈 때, 이론은 전사(前史)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이것은 이론이 갖는 한계이지만, 이러한 ‘뒤쳐짐’은 지나간 사건들에서 보이지 않던 연결망을 발견하고, 과거를 다시 잠재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현상들은 끊임없이 현재화되어 우리에게 복귀한다. 신임교원인터뷰는 세번째로 하승우(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를 찾았다. 그는 “이론은 스스로의 무능력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며 “불가능성은 가능성을 만드는 출발선상”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요새는 이론적 논쟁을 공론화하는 장이 줄어들었다는 데에 위기감을 느낀다”며 최근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호탕한 웃음소리로 이미 학내의 큰 화제거리인 영상이론과의 하승우 교수가 그리는 학교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학부 때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은 영상이론과에 왔다. 영화나 미학이론 등 인문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던 것인가.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했었다. 특히나 극장 속 어둠으로 인한 익명의 관람은 대단히 편안했다. 지금은 관람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극장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웃음). 또 법을 전공했지만 미학이론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주 옛날 용어지만 ‘서사연(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이나 ‘서문연(서울대 문화과학 연구소)’ 같은 작은 규모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존재했었다. 지금의 ‘수유너머N(인문학 연구소)’처럼 아주 크진 않았지만,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같이 공부하거나 토론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

졸업 이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깐 오히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회사에 가면 망한다’ 같은 말도 있었는데, 회사라는 자체가 나에게 잘 맞지 않았다. 나는 일이 주어지면 강박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육체적으로까지 드러났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목말랐고, 이 일을 평생 영위해야 한다는 데에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일이 매우 기뻐다. 그래서 무모한 행동들, 가령 ‘잠을 안 자고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같은 실험을 하기도 했다. 공부에 대한 주이상스(Jouissance)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동기들 모두가 술을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다. 참 재미있던 시절이다.

특별히 우리학교 영상이론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전문사에 들어왔던 때가 2000년이였다. 90년대 중반은 한국영화계에서 제

2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에너지가 있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영화를 전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졌던 시절이다. 이 건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제껏 다른 문화 장르들에 뒤쳐져 있던] 영화가 그것들을 선도하는 것 같은, 일종의 헤게모니의 역전 같은 게 벌어졌던 듯하다. 마침 <씨네21>(1995년 창간)이나 부산영화제(1996년 개막) 등의 흐름도 생기면서, 무언가 정말로 만 들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마치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지배적인 것(the dominant), 잔여하는 것(the residual), 부상하는 것(the emergent)’으로 나누는 세 가지 중에, 90년대 중후반은 무언가 ‘부상하는’ 시기였다.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비가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부상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영화’에 대한 흥미가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곳에 들어와버렸다.

이론 계열은 예전과 지금의 학습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질문이 유의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영화이론을 공부했던 당시의 환경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론 영역에서 흐름의 변화도 있을 듯하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두 사람의 분야와 나의 분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이론은 현상 뒤에 위치한다.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시대에 편승하여 곧바로 앞으로 나아간다고보다는 늦게 뒤따라가는 느낌도 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이론이 갖고 있는 강점이기도 할 것이다. 차이에 대해서는 내가 요즘 세대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완벽하게 알지 못 하니 일반화에 대한 걱정도 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가령 당시에는 영화와

정치경제를 함께 보려고 했었던 흐름이 강했지만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은 적어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되려 영화의 세부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네필(Cinephile) 분위기가 강해진 듯하다.

유학을 가게 된 배경과 그곳에서의 교육 환경을 듣고 싶다.

전문사를 마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었다. 한국에서는 영화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동기들은 망명을 가네 어쩌네 놀렸었다. (웃음)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유럽은 논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다. 미국의 경우 ‘코스웍(Course-work)’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유럽의 경우 코스웍이 상대적으로 적고 논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나는 전문사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서 그런지 코스웍보다는 논문을 쓰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그래서 유럽의 시스템이 좀 더 맞았다. 런던대학교는 코스웍이 1년밖에 없었고,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이후로는 자유롭게 논문만 쓰면 됐다. 논문을 쓰면서는 크리스 배리 지도교수와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 경험은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상원 내에서 영상이론과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선 시각문화(Visual Culture)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우리는 영화이론과가 아니라 영상이론과다. 영화라는 단위를 넘어서, 시각문화 전반에 대해 연구하는 학과이기도 하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자체의 문제, 따라서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셀룰로이드 필름(Celluloid Film)



© 서안

에만 기반하는 걸 넘어서 무빙 이미지(Moving Image)로 외연을 넓히고, 동시대의 시각문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판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하다. 실제로 영상이론과에서 비판이론, 가령 아도르노, 크라카우어, 벤야민 등을 가르치기도 진행하기도 하지만, 영상이론과는 시각적인 문제들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과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동시대의 시각문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일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인터뷰에서 조총연 교수와 조현 교수는 융합 및 통섭적인 교육 시스템을 학내에 구축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융합 교육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통섭에 대해서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한다. 테리다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나면, 통섭을 할 때는 우리는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려고 한다. ‘나’도 고정되어있고 ‘너’도 고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공통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융합은 각자의 한계나 곤란함, 장애물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즉 나와 너의 교집합을 만드는 것보다, 서로의 한계, 하지만 그 한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그 한계.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이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한계.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우리과는 할 수 없는 한계,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는 한계에 집중하면서, 한계를 텅 빈 기표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클루게가 『공론장과 경험』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 영역(Proletarian Public Sphere)’ 등을 언급한 것과도 닿아 있다. 그가 벤야민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은 관

람객의 경험이기도 한데) 하나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은 교집합이 아니라 각자의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묶여나간다고 말한다. 이것이 어쩌면 테리다가 얘기했었던 ‘불가능의 가능성’이 아닐까. 서로가 불가능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성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 아닐까.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다짐을 듣고 싶다.

오늘은 인터뷰라서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사실 말을 아끼고 싶은 사람이다. 상투적인 것 같지만, 내 말을 많이 아끼고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듣고 싶다. 물론 강의할 때도 말을 많이 하지만, 밖에서는 말을 많이 줄이고 싶은 편이 있다. 내가 말을 줄일 때, 나도 학생도 좀 더 많은 걸 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전문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안 기자

obrigado1016@gmail.com

영상원 실험실습비는 어디로?

“실험실습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지 의문”



△ 석관동캠퍼스 영상원 L131 비디오 TR실

영상원 학생들은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실험실습비를 납부한다. 실험실습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징수되는 금액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업 준비물이나 현지학습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료나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라는 근본적인 비판 외에도 학생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과 관련하여 실험실습비는 다양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2014년 8월 이후 영상원 행정실에서는 그동안 학내포털사이트 누리에 공개하던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원 학생들이 지불하는 실험실습비는 다음과 같다. △영화과 예술사 300,000원(전문사 극영화시나리오 전공 150,000원) △멀티미디어영상과 예술사 100,000원 △애니메이션과 100,000원 △방송영상과 예술사 300,000원(전문사 150,000원)을 견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영상과 전문사와 영상이론과는 따로 실험실습비를 걷지 않고 있다.

실험실습비 내역에 대한 속지가 부족했던 나머지 영상원 기자재실이 실험실습비로 운영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도 존재했다. 영상원 기자재실은 국가에서 지급한 국고 예산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교육 기자재 구입에 책정된 예산액은 412,000,000원이었고 집행 금액은 총 411,384,910원으로 615,090원이 남았다.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 비용에 책정된 예산액은 50,000,000원이었고 집행 금액은 총 49,978,870원이 사용되어 21,130원이 남았다. 영상원 수업이나 촬영 실습 때 사용되는 카메라나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들은 국가에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 구입하고 유지·보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상원 학생들이 지출한 실험실습비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실험실습비 징수 및 집행 지침」이하 「실험실습비 지침」 제2조(실험실습비 용도)에서는 실험실습비의 용도를 △예술실기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구입 △ 실험실습 및 교과자료 구입비 △예술실기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공연 및 관람료, 특강료 △현지학습 활동비 및 여비 △그 밖에 원장이 실험실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습비 지침」 제7조(실험실습비 관리대장 비치)에서는 “각원 원장이 실험실습비의 적정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실험실습비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집행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 2학기 방송영상과의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은 작품제작비 지원 및 조명사용, 사운드보정 사례비용으로 전체 예산(25,345,000원)에서 약 39.74%(10,073,810원)를 지출했고, 이외 기타 소모품 및 실습재료 구입으로 전체 예산에서 약 60.25%에 이르는 비용(15,270,920원)을 지출하였다.

같은 시기 영화과에서는 영화관람료로 전체예산(63,915,000원)에서 0.94%(60,700원)를 지불했고, 실습재료 및 외장하드 구입비용으로 65.68%(42,689,290원), 수업지원 및 작품평가 사례비로 8.72%(5,395,450원), 작품제작비 지원비용으로 24.4%(15,600,000원)를 지출했다. 한편 올해 1학기 영화과의 실험실습비 초기 집행금액은 총 150,000,000원이다. 매년 1학기 수업으로 개설되어 있는 <마스터클래스1> 수업을 진행할 때, 실험실습비를 사용한다. 이번 학기 5월 17일 기준으로 초청 강사료 지급과 수업 진행비 및 촬영사례비와 작품상영비로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 중 8%를 사용했다.

멀티미디어영상과의 경우 실습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실험실습비의 95.92%(5,198,920원)를 지출했고, 애니메이션과의 경우 전체예산(6,320,000원)에서 인체드로잉 모델료로 약 12.65%(800,000원)를 지불했고, 디지털복합기 유지보수비로 33.19%(2,098,060원), 기타 소모품 및 실습재료로 53.86%(3,404,5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출했다.

타대학들에서는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비해 [2014학년도까지는 학내포털사이트 누리에 집행내역을 공개했던] 우리학교 실험실습비는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되는 편이다. 다만 실험실습비 집행 혹은 실험실습비 자체에 대한 비판은 존재한다.

먼저 작년 특강료로 편성된 금액이 5,000,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760,000원에 불과하고 3,240,000원에 이르는 금액이 남았다.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에서 잔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14년 이후 실험실습비 집행 내역을 학생들에게 따로 공지하는 절차도 없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1학기에 영화과에서 진행되는 수업인 <마스터클래스1>에서 실험실습비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측면이 존재하지만, 전공필수 수업조차 아닌 데다가 일단 ‘수업료’를 실험실습비로 따로 지출하는 것이 용인가능한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령 예술교양학부의 외부강사 초청식의 수업이 수강생들에게 따로 돈을 건어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영화과의 정규 수업에 실험실습비의 상당한 양을 투입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익명의 영화과 학생 A 씨는 “<마스터클래스1> 수업 비용은 학과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험실습비가 마스터클래스 운용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총 1억5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실험실습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영상원 행정실은 누리

계시관 등을 통해 공식적인 보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자재실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더라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 내역에는 외장하드나 메모리와 같은 자재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오성근 영상원 행정실장은 “외장하드나 메모리와 같은 소모품은 학생들이 자료를 축적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고 예산으로 따로 편성되어있지 않다”며 “과목마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대개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촬영하지 않아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하고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익명의 방송영상과 B 씨는 “8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납부한 2,400,000원의 실험실습비에도 불구하고, 졸업작품을 제작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졸업작품 제작시 “같은 실험실습비를 내고 있지만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촬영’, 논문, 이 네 가지 전공에 따라서 지원금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똑같이 돈을 내고도 혜택의 과정에서 차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또 다른 영화과 학생 C 씨는 실험실습비가 국가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C 씨는 “일단 실험실습비가 왜 국가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며 “일부 학생들의 불만사항일 테지만 [소득분위가] 1분위, 2분위인데다가 자비로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정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 최현주 주무관은 “실험실습비가 등록금이나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험실습비 자체에 대해서 「실험실습비 지침」 제2조(실험실습비 용도)에 관한 근본적인 지적도 가능하다. 즉 용도로 설정된 네 가지 항목을 종합해보면, 특별히 ‘실험실습’이라는 용도 이외에도 수업에 관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어떤 항목으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소모품 구입이나 수업 비용 등에 상당한 양

의 실험실습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제작비가 시급한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의 경우 실험실습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 학기까지 조형예술과에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한 학생은 “이미 상당한 양의 금액을 학교에 지불했음에도 추가적인 금액을 학교에 내야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의 본교 같은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18유로(한화 2만 4천 원 정도)만 내면 어떤 수업이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특정 학과에 한해서 실험실습비를 등록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징수를 하는 분위기지만, 그것이 어찌서 공식적인 학교 예산에서는 제외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근본적인 비판도 가능한 것이다.

작년 1학기에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실험실습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실험실습비 폐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과가 있어 제1차 재정위원회에서 15학년도 2학기부터 실험실습비를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논란이 되었던 실험실습비 반환 문제 이후 구체적인 내규가 마련되면서 집행의 원칙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집행내역 공개 문제나 기자재의 한계 등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박굴 기자

kyulp123@gmail.com



△ 영상원 L547 디지털애니메이션실 1

‘빛나는’ 졸업장을 위하여

미술원 디자인과 막대한 졸업 비용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

치열한 입시 전쟁을 끝내고 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끝일 줄 알았다. 그렇지만 입학 후에도 학생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밤샘 야간 작업, 어마어마한 과제들은 물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괴로움까지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예사다. 그렇지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어찌어찌 8학기, 4학년을 마치고 나면 코 앞으로 졸업전시회, 졸업상영회, 혹은 졸업연주회, 졸업발표회가 다가온다. 졸업 요건은 과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을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교수의 ‘졸업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한여름 수중에 맞는’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다. 만들다가 버려지는 작품도 있고, 예전에 썼던 아이디어가 재활용 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은 개인 사비를 털어야 한다. 그 비용이 적게는 십만 원에서 많게는 오륙백만원을 호가한다. ‘졸업’ 그리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미술원 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 졸업전시회[이하 ‘졸전’]를 준비하며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하는지 미술원 디자인과 휴학생인 A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디자인과 내부에서 졸업 전시회를 위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졸업을 한 동기에 물어보니 개인에게 따로 주는 것은 없고 졸업예산안 안에 홍보 인쇄물과 한 명 당 출전에 개인적으로 붙이는 배너 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 또 졸업생들이 모여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사비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 금액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미술원은 매년 실험실습비를 걷음에도 그 돈이 졸업 준비금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디자인과 특성상 실습비를 걷는다고 해도 일회용 재료는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학 중이라 지금(2016년 1학기부터) 실험실습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내가 휴학하기 직전이던 2014년 2학기엔 매 학기마다 20만원씩 걷었다. 실험실습비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학기마다 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과 측에서는 일단 작업실이나 컴퓨터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매 학기마다 가는 답사 비용도 아마 실험실습비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다. 봄, 가을 답사가 있다. 우리도 과실이 작업실이니까 그 곳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험실습비에서 나온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 졸전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학생이 책임지나? 그렇다고 알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알고 싶다.

디자인과는 졸전은 중간 과정에서 꽤 많은 돈이 든다. 최종 완성분만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샘플을 만들거나 시범인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범인쇄 같은 경우 A2 크기의 컬러 인쇄를 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이 것이 지역마다, 가게마다 다르지만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은 기본으로 각오하고 가야 한다. 샘플을 한 번만 뽑으면 좋겠지만 수차례 뽑는 일이 다반수여서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수들도 샘플을 뽑아오면 그대로 가라고 하기보다 수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정 과정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디자인과에는 졸업 어시스턴트 제도가 있는데 졸전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과정이라 학번 낮은 후배들이 선배를 도와주는 제도다. 자잘한 심부름이나 사진보정 같은 것을 도와준다. 기본적으로 페이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정 상 그것이 어려우므로 페이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어시스턴트가 먹는 밥이나 야식은 졸업 준비자가 사는 것 또한 관례이므로 여기서 꽤 많은 지출이 생긴다고 알고 있다. 또 모든 작품 준비가 끝난다고 해도 출전하는 곳에 부스를 세워야 하는데 그 때 필요한 선반이나 탁자 등을 개인 구매하여 디스플레이를 완료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가?

개인 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내가 어



△ 2015학년도 디자인과 졸업전시회 ©곽소진

시스턴트를 했던 선배는 사백만 원을 썼고 크게는 육백만 원을 쓴 선배도 있다고 들었다.

졸전을 위해서 다들 어떻게 비용을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3학년 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놓는 경우도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적금을 들었다. 순전히 출전용이다. 기본적으로 나도 사백에서 오백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큰 돈을 부모님께 손 벌리기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대부분 디자인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번쯤은 했었다고 알고 있다.

학교에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출전 작품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가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인당 얼마 정도 줄 수 있는지 학교 사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도 다르고, 차라리 샘플 수정 과정에 따르는 비용을 학교에서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픽 디자인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려면 시험 인쇄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무료로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실험실습비를 내지만 과실 프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물론 조교나 교수들이 가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다. 앞서 말했듯 A2 인쇄 같은 것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학교 내에 플로터라는 인쇄기가 있다. 학교에서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받는 비용이랑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 듣고 싶다.

그리고 또 문제는 출전 합격 여부가 부스를 다 만든 뒤에 공지된다는 것이다. 불합격 된 부스는 출전장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 철거에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품이 만만치 않다. 매해 적으면 두, 세 명 많으면 대여섯 명이 졸업 심사에 불합격한다. 우리 학과에는 라운드 특이라는 중간 심사와 피드백 과정이 여러 차례 있고 담당 교수님과 꾸준히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인데도 부스를 만든 이후에 졸업 합격, 불합격 여부가 고지 된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불합격한 사람은 돈과 시간만 날리고 다음 학기에 다시 졸업 심사에 도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소한 것들을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프린트 같은 자잘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만 해주는 정도. 그리고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단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최저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몇 푼 안 되는 용돈이나 아끼고 아껴서 꼬박꼬박 적금을 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졸업 비용은 과마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졸업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비단 졸업 비용 문제가 디자인과만의 문제일까? 분명한 사실은 졸업하려면 모든 원에서 작품 하나 씩은 만들고 무대 위에 올리거나 전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학생들의 부담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 2015학년도 디자인과 졸업전시회 ©곽소진



△ 2015학년도 디자인과 졸업전시회 ©곽소진

권라임 기자
kwonlime@karts.ac.kr

“졸업하면 나는 뭐하지”?

졸업생들의 예술창작집단 현황 살펴보기

“졸업하면 나는 뭐하지/영상원 졸업하면 이제 나는 뭐하지”. 2012년 발매된 가수 이랑(영상원 영화과 졸업)의 1집 앨범 수록곡 〈졸업영화제〉의 가사다. 대학정보공시제도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5년 6월 1일 기준 우리나라 2014년 졸업자의 취업률(건강보험 적용)은 불과 21.4%였고, 2013년 졸업자의 취업률은 51.2%였다. 물론 예술학교 특성상 졸업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취업률’을 학교의 질을 따지는 절대적인 기준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이강숙 초대 총장은 재임 시절 당시 국정감사에서 취업률에 관한 질의를 받아 “예술학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가 중요한 이들에게 언제까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예술학교에 다니지만, 주변에 졸업 후 ‘하고 싶은’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신기루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졸업 후 예술창작집단, 동인의 형태로 활동을 계속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자.

한창 이요섭 감독의 영화 〈범죄의 여왕〉(가제) 후반작업 중에 있는 ‘광화문시네마’는 최근 특히 주목받는 창작집단 중 하나다. 광화문시네마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작은 영화제작사로,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13기 출신 6명(김태곤 △권오광 △우문기 △이요섭 △전고운 △김보희)이 속해 있다. 이들 감독들이 서로의 작품에 돌아가며 메인 스태프를 담당해주는 방식으로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태곤 감독의 〈1999, 면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20회 춘사영화상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던 우문기 감독의 〈죽구왕〉(2014), CJ E&M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산학협력사업인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공모 및 영화 제작 공동개발 사업’ 지원작이었던 권오광 감독의 〈돌연변이〉(2015)까지 총 세 편의 독립장편영화를 선보여 관객과 평단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

영상원 영화과 예술사 제학 중 독립장편영화 〈네버다이 버터플라이〉(2013)를 연출했던 장현상 감독은 창작집단 ‘피도안마른사람들’ 소속이다. 피도안마른사람들은 파티 기획·주최, 영화 제작, 음악 창작활동 등 다양한 창작주체들이 모인 창작집단으로, 장 감독의 두번째 연출작인 〈사돈의 팔촌〉 역시 〈네버다이 버터플라이〉와 마찬가지로 ‘피도안마른사람들’이 제작을 맡아 지난 5월 12일에 극장 개봉했다.

전통예술원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창작연희극단 ‘극악무도(劇樂無道)’ 역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전통 배뱅이굿을 광대놀음으로 연극화하고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배뱅이’ 이야기를 찾아서〉,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작 〈모던레퀴엠 “셋김”〉 등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젊고 실험적인 무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창작집단 ‘독’은 지난해 11월 30일 첫 회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출간했다. 독은 박춘근 △고재귀 △조정일 △김현우 △김태형 △유희경 △천정완 △조인숙 △임상미의 연극원 출신 극작가 아홉 명으로 구성된 연극 집단이다. 오늘날 문학논의에서 뒤전으로 몰려난 희곡의 문학적 가능성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희곡 실험을 하고 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독플레이’라는 유기적 형식 실험의 결과물로 나온 이 책은 스물여섯 편의 독립적인 단막 희곡을 유기적으로 엮은 결과물로, 책의 3부에 해당하는 「터미널」은 극단 ‘맨씨어터’가 제작에 참여한 연극으로 무대에 오르기도 하며 연극계와 문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졸업생들이 예술창작집단을 결성하여 활



△ 광화문시네마 〈죽구왕〉 스틸컷. 미술원·전통예술원 전경이 보인다. ©광화문시네마



△ 창작연희극단 ‘극악무도’의 〈‘배뱅이’ 이야기를 찾아서〉 공연 모습

동 중이다. 활동 분야는 극단, 영화제작사, 연극집단 외에도 사운드 믹싱, 출판, 디자인, 회화, 예술비평 등 다양하다. 앞서 소개한 예술창작집단들처럼 해당 분야에서 주목과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졸업 이후 예술창작집단 형태로 작업하는 것을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예술창작집단들이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결성되지만, 집단의 창작활동에서 얻는 이윤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활동 분야 자체가 영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고, 아예 초기 작업을 위한 기본 예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예술창작집단 소속의 예술가들이 본업을 따로 두거나 파트타임, 외주 등을 함께할 수밖에 없고, 각자의 여건이 맞지 않아 집단이 해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많은 예술창작집단이 정식적이고 영리적인 프로덕션 형태가 아니라 그저 ‘집단’으로 불리운다는 점은 작업의 자율성과 능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소속 활동가들을 공고히 유지한 채 장기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면에 공동수입이 없어서 오히려 팀내 불화나 분란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한쪽을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내세우기 곤란하다.

다만 앞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들 활동의 의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해야 하는 것은 미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실태나, 예술창작집단이 그들

스스로를 ‘독립’ 등의 용어로 명명하며 자칫 전략적인 측면이 알파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여야 한다. 방법론의 측면을 고민해야지, 이러한 예술창작집단의 활동이 예술 분야에 가져오는 생명력과 의의를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 졸업 후 아카데미의 울타리를 떠나 그저 ‘무엇을 할지’에 멈춰서지 말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예술창작집단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신호 기자

mat3chon@gmail.com

그렇다고 잘되는 건 아니지만

〈사돈의 팔촌〉 연출 장현상 감독을 만나다

〈네버다이 버터플라이〉를 연출한 영상원 영화과 출신 장현상 감독을 석관동에서 만났다. 장 감독은 5월 12일에 두번째 장편영화 〈사돈의 팔촌〉을 극장에 걸고 여러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돈의 팔촌〉의 엔딩크레딧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띈다. 장 감독은 이곳에서 만난 동료들과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 시간들과 만남에는 어떤 익숙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영화 〈사돈의 팔촌〉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마냥 서로 좋아할 수만은 없는 사촌 사이의 사랑 이야기다. 사랑의 설렘과 불안함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매년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매년 달라지고 매년 모르겠고 그렇다. 멜로라고는 하는데, ‘청춘 멜로?’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다. 금기보다는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한 그런 영화다.

영상원 영화과 출신이다. 영상원을 졸업한 후,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하다.

〈네버다이 버터플라이〉를 찍고 다시 영화를 찍을 기회를 찾아볼까 했는데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역량은 없는 것 같기에 이런저런 구상을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사업을 도왔다. 보통 영화과 친구들은 졸업 후, 작품구상을 하면서 기회를 본다. 동기 중에는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찍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들이 〈사돈의 팔촌〉에도 녹아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식의 상담이었던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다. 사실은 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뭘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것이 뭐 있나 들여다 보는 것처럼 되더라. 일단 주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렇게 한다고 잘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웃음)

예술사 재학 중에 〈네버다이 버터플라이〉를 연출했으니 장편으로는 두 번째다. 소감이나, 노고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듣고싶다.

영화를 찍으면서 또 느낀 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잘 활용하면 찍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디테일한 후반 작업이라든가, 특히 배급은 어느 정도 영화 자체의 힘과 더불어 운과 기회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 개봉까지 하게 된 것은 운의 힘이 크다. 특히 서울독립영화계에서 처음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쪽에서 작게 개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봉하게 되었다.

GV(Guest Visit)가 활발해 관객들의 반응도 많이 들려왔을 것 같다. 특히 인상깊은 반응은 어떤 것이 있었나?

스스로는 개봉되기 전에는 영화가 덜 자극적이고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DVD로 영화를 접한 사람들은 지루해서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극장에서 본 사람들은 설레하고 불안해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보더라. 몇몇 관객들은 스티리 같더라고까지 하더라.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불안한 공기를 잘 잡아냈다는 거니까.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일단 사랑 이야기였고, 집에서 찍을 수 있을만한 이야기여야 하

고, 내 나이 또래의 이야기고, 군대 있을 때의 친한 친구가 친척동생을 보고와서 “너무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춘수를 따졌던 것이 생각이 났다.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하고, 곧 전역할 군인이라서 사회적인 옷을 입고 틀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용기있게 따라가면서 순수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피도안마른녀석들’은 전작 〈네버다이 버터플라이〉 때부터 영화 제작을 맡았던, 친구들끼리 모인 창작집단이다. 영화제작과 파티 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실제로 7명이고, 내부에는 행사 기획하는 팀이나 DJ 팀, 영상 그래픽하는 친구도 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와 건국대 영화과 친구들과 같이 만든 집단이다. 나가서 뭔가를 해보자고 먼저 이름을 지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화를 하는 구성원은 나 혼자다. 영화를 찍겠다고 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스태프로 참여하거나 한 것은 없는데 가끔씩 와서 짐 들어주고, 배급사가 생기기 전에 디자인을 해주기도 했다. 평소에도 서로가 하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 좋은 음악을 공유하고, 디자인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연출을 비롯해, 배우, 편집, 음악 등 주요 스태프가 우리 학교 출신이다. 전작에서 출연했던 배우 강기등은 캐스팅 디렉터로 이 영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예종 출신의 구성원들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에 어떤 시너지가 존재하나?

[장편영화도] 단편영화를 만드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우리 학교는 품앗이제다. 캐스팅도 요번에는 폐쇄적으로 한 면이 있다. 강기등 배우가 시나리오를 읽고 그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이 마음에 안들었으면 다시 사람을 구했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빠르게 캐스팅을 할 수 있었다. 나도 학교에 오래 다니니까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부러라도 다른 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연극할 때 사진 촬영을 가거나, 영상 촬영을 해주고 연극도 자주 보러 갔다. 영화를 찍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 영화 자체가 작은 규모이기도 해서 현장을 이해해줄만한 친구를 찾게 된 것도 있는 것 같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작업해서 얻은 시너지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열약한 현장의 불편함을 이해해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편한 분위기로 촬영을 했다. 어느 정도는 친한 배우들이니까 연출자가 없어도 서로 연습하고 교감을 하면서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케미’(Chemistry)를 발산하는 부분이 있었다.

‘청춘’이라는 것 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나? 다음 작품은 구상한 게 있는지?

다음에는 여러가지 끌리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길거리 레이싱

영화를 찍고 싶다. 위험한데, 달리고 싶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서라도 돌진하고 싶은 마음. 또, 패러디물도 다뤄보고 싶다. 커피가 금지되면서 커피를 밀매하고 생두를 가로채고 약탈하는 내용으로. 느와르이긴 느와르라서 심각한 내용이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커피공장103’ 3층에 30석 정도의 작은 영화관을 준비중이다. 카페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한 여동생과 내가 맡아 영화관 운영을 계획 중이다. 카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무료 상영이 아니고, 직접 돈을 받고 상영할 예정이다. 작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영화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개념의 영화관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틀고, KUS네마테크·KUS네마트랩과 긴밀히 연결해서 기획전을 연계할 생각이다. 많은 관심 가져달라. (웃음)

이상연·안신호 기자
sangyoun0117@gmail.com
mat3chon@gmail.com



△ 〈사돈의 팔촌〉의 스틸컷이다. 감독이 촬영감독의 역할을 겸한 이 작품에서는 카메라워크가 돋보인다.

이주의 사회

‘강남역 살인사건’ 경찰 발표는 ‘정신이상’?



△ 시민들이 강남역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서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새벽 1시 경 서초구 인근의 한 노래방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 씨(23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 씨(34세·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진료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김 씨가 2008년부터 정신분열증과 공황장애로 4차례 걸쳐 입원한 기록이 있어 ‘여성혐오 살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종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면서 “문제는 그가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고 그것은 ‘여성혐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 씨가 화장실 앞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린 정황과 김 씨의 자백 내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에 해당이 돼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결과에 대한 본인의 예측가능성, 계획성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사건 당시 시시비비능력 존재했다고 판결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행 혹은 사기. 조영남 대작 사건의 쟁점은?



△ 조영남(우)와 대작 논란이 불거진 ‘화투’ 시리즈의 (꽃과 물라)(좌) ©조선일보

지난 19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조영남 대작 사건에 대해 사기죄 혐의 입증에 대해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작 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검찰에 들어온 한 무명 화가 송 씨의 제보였다. 송 씨는 자신이 ‘화투’ 시리즈를 비롯한 조 씨의 주요 작품들을 대작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진술을 통해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며 대작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대작은 범죄가 아닌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로 꼽았다. 하지만 사기죄는 송 씨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림을 판매하였을 것이 판명되고, 조 씨의 그림을 온전히 조 씨의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모두 밝히기 위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편으로, 검찰은 “그림은 붓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 씨의 경우는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경우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 특성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기에 검찰은 송 씨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가지 쟁점사안과 관련된 그림의 판매처 및 구매자 추적을 위한 수사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놓고 정부 - 노동자 대립 이어져...

파리는 지금 시위 중



△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낭트에 모인 시위자들 ©AFP/GETTY IMAGES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노동법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노동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동참해, 남부 마르세유와 서부 낭트, 르망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 임금 수당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마르세유 지역 노조 대표인 로랑 카사노바는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봉쇄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1 라디오를 통해 고용 및 투자 부양책으로 이번 법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날 시위에서는 최루가스나 물대포가 등장했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수 주간의 시위에서 경찰 350명이 부상을 당했고, 시위대 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브로커 잡아라”... ‘정운호 게이트’ 검·경 공조체계 본격 가동



△ 검찰이 정 대표의 법률고문을 지낸 홍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일명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 조사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브로커 두 명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번 수사의 검거대상은 정 대표 측 브로커 이 씨(56)와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 씨(44)이다. 정 대표 측 브로커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경찰과 검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선처 목적의 로비를 하고 고교 선배이자 현재 검찰 수사 담당자인 검사장 출신 홍대표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입료를 받은 최 변호사에게 도박사건 수임을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진 바가 있다. 검찰은 “머칠 시차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악한 바로는 [두 브로커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로비 의혹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인 만큼 이들의 검거 성공 여부가 이번 사건 수사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특히 두 인물의 도피나 밀항 가능성에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완 기자

official0504@gmail.com

잃어버린 신체를 찾아서

젠더 이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물학적 특성’들은 명징한가?

산부인과와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가 부모에게 낳지 시아의 성별을 말해주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신체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DNA 염기서열의 23번째 자리를 통해 부여된 ‘생물학적 성’은 우리의 신체를 규정했으며 우리는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바탕으로 ‘자연적 성(Sex)’의 개념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들은 명징한가? 가령 남자가 더 충동적이라 하거나 여자가 더 감성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신체에 기반한 사실들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흔히 과학이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한없이 진리에 가깝다고 믿어버리곤 한다. 세계의 지명된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정사실화 된다. 하지만 과학은 사실 ‘상대적 진리’만을 포착할 수 있으며, ‘반증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끝없이 자기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탐구의 과정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 정말로 ‘완결된 과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실로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는 비판 될 수 없는 것은 학문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앙으로서의 과학은 근대까지도 학계 전체에서 팽배해 존재해왔다. 이는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통해 드러난다. 남성주체적 시각의 과학은 오랫동안 신체의 영역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해왔다. 18세기 후반에는 여성은 두개골 내부가 너무 작아서 강한 뇌를 담을 수 없다고 여겼고, 19세기 후반에는 여성의 뇌가 활발하게 기능하면 난소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여겼다.

물론 이러한 오개념은 후대에 본질주의 페미니즘과 주디스 버틀러 등의 이론가를 거치며 어느 정도 정정된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등장하고 있는데, 일례로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Tel Aviv)대 다프나 조엘 교수팀은 1,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뇌 MR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은 남자의 뇌 또는 여자의 뇌라고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일관성 있게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대과학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왜곡된 연구 결과들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통념으로서 잔류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남성 주체에 의해 왜곡된 신체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의 섹슈얼리티까지도 왜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서 리처드 니즈벳과 도브 코언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통계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살인에 연루되어 있다”며 “여자가 남자를 살해할 가능성에 비해서 남자가 여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대개 남성의 공격적 성향과 살인행위가 모두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두 연구자는 실제로는 이러한 통계적 사실이 신체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성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흔히 ‘타 지역에 비해 사냥고 난폭하다고 알려진 미국 남부의 남자들을 조사한 결과 남부의 제도적인 측면과 법률, 사회 정책들이 ‘자신에 대한 모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남성의 폭력성이 신체적 배경보다 오

히려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원숭이의 공격 성향 분석을 사람의 신체에 적용해온 진화심리학의 예시처럼, 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온 신체에 대한 연구들이 젠더의 영역을 명백히 무시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샌드라 하딩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성 주체의 주도 하에 발전되어온 과학이 가지는 문제이며 오늘날의 과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딩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의 과학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거리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과학의 객관성을 넘어서 “인식 주체의 위치조차 성찰하는, 즉 이중의 성찰”을 객관성의 요건으로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의 과학 연구는 남성 주체의 권력적 도구로 사용된 탓에 이러한 젠더적 측면을 모두 무시한 채 왜곡된 신체로 접근하려는 시도만 반복했고 그 결과에서 명백히 한계성을 가지는 결론만을 도출해내게 되었다. 이러한 과오에 의해 근대과학은 ‘여성성’과 관련된 일련의 가치들을 역사의 바깥으로 추방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 불평등을 심화하였다. 론다 슈빈저의 말대로 우리는 젠더에 대한 과학을 생애장함으로써 과거사의 일부 또한 매장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근대과학이 빛어낸 실재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언제나 개별 개체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

서동완 기자

official0504@gmail.com

‘낭만’에 대하여?(3)

예술
기고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초기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이 글은 연재를 위해 새로 쓴 것이지만 필자의 기존 논문과 강연원고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본론(2)

쉐레겔에서 포에지(=신화=예술)와 철학은 불가 분리적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의 철학사상을 알아보자. 쉐레겔은 무엇보다도 문필가, 즉 예술(문학)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므로 예술의 측면에서 그의 철학사상에 접근해 보자.

1) 예술과 철학이 지니는 공통의 아포리아
예술가는 근대들어 고대의 시인, 즉 신의 사제이자 대리인의 위치로 격상된다. 예술은 신적인 것(=절대적인 것)¹⁾의 표현(=전달)이 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절대적인 것)를 표현할 수 있는가?

낭만주의자가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다. 절대자를 표현할 수 있으려면 '절대자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절대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해도 그것이 예술과 같은 감각적 형식으로 표현가능하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자 고르기아스는 절대자(=절대적인 진리)와 관련한 아포리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절대적이라 할) "아무 것도 있지 않다. 있더라도 알 수 없다. 알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이 아포리아에 대한 쉐레겔의 답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철학은 절대자를 추구한다. 그러나 과연 유한한 인간의 의식이 절대자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의식을 지닌 인간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자에 대한 추구는 무한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식을 지닌 인간의 운명 혹은 본능이다."

헤겔은 절대자를 개념을 통해, 개념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개념적 파악을 뜻하는 독일어 '베그라이펜(Begreifen)'은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어떤 것에 대한 개념적 파악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쉐레겔은 절대자에 대한 헤겔식의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인간은 절대자를 추구할 뿐, 그것을 완전히 내 소유로 움켜질 수는 없다. 이로부터 낭만주의자의 철학관(진리관, 지식관)의 일단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철학은 절대자를 추구한다'는 명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철학적 입장이 나온다. 첫째, 절대자에 대한 무한한 접근만 가능할 뿐 완전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둘째, 절대자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이성과 개념적 파악은 하나의 접근방법일 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앞서보았듯 헤겔은, 절대자는 개념을 통해, 개념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2) 절대자는 무엇인가
예술과 철학이 처한 아포리아를 넘어서기 위해 쉐레겔은 절대자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그는 우선 절대자가 무한히 추구되지 않을 수 없다면 절대자를 차라리 '무한자(무한한 것, 무한히 추구되는 것)'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소유(=파악)할 수 없고 무한히 추구될 수밖에 없다면 절대자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인간의 노력들, 즉 토대, 체계, 개념 등은 모두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낭만주의자는 '그렇다'고 한다. 절대자를 '무한자'로 이해하는 자신의 철학체계도 같은 처지임을 인정한다. "무한자 자체가 허구이다." (쉐레겔)

그러나 인간이 절대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것들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아니 인간에게는 이것들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없다. 절대자와 관련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가치체계들, 철학·예술·도덕·종교 등은 허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낭만주의자의 절대자에 대한 접근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절대자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의 추상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추상은 제거의 의미를 지닌다. 즉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제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 즉 유한한 것(=유한자) 뿐이다. 그러므로 절대자이지 않은 것의 추상은 무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절대자는 '무한자'이다.

그런데 추상을 하기 위해서는 '추상을 하는 주체', '추상하는 자'가 필요하다. 추상은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식은 추상할 수 없다. 결국 그에게 절대자는 '무한자'와 '의식'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즉 절대자는 무한자와 의식의 관계를 통해서 성립한다.

의식의 역사, 혹은 철학사는 각각의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의식된 무한자에 대한 서술이다. 그렇다면 무한자와 의식은 현실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쉐레겔은 인간에게 실재하는 무한자는 '우주자연'이며, 의식은 '반성(능력)'²⁾이라고 한다. 즉 의식의 역사는 '실재성(현실성: Realität)에서 파악하면 '우주자연에 대한 반성의 역사'이다.³⁾

3) 스피노자와 피히테 혹은 자연철학과 반성철학의 종합으로서의 알레고리론

쉐레겔에서 철학은 절대자의 추구이다. 그는 무한자와 의식을, '실재성'을 통해 종합함을 자기 철학의 과제로 삼는다. 무한자와 의식의 관계의 규명이 절대자의 서술이며 이 양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진 것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 즉 '실재성'이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철학은 스피노자와 피히테의 철학이다. 전자가 무한자에 관한 최고의 철학이라면 후자는 의식에 관한 최고의 철학이다. 무한자=우주자연=자연이며 의식=반성이므로 스피노자의 철학은 최고의 자연철학이며, 피히테는 최고의 반성철학

자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적 과제는 스피노자와 피히테의 결합이 된다.

쉐레겔은 스피노자 철학의 기본관점, '신 즉 자연'을 받아들인다. 스피노자는 이를 무한실체의 양태화, 즉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의 관계로 설명한다. 쉐레겔은 스피노자의 설명을 '신성=자연'으로 변형한다. 또한 '무한실체'는 '무한자', '양태'는 '알레고리'로 이해한다.

쉐레겔은 무한자(=스피노자의 무한실체)의 운동을 '무한자의 유한자화', '무규정자의 규정자화', '전체의 개체화', '질료의 형식화'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절대자가 무엇인가를 말하지만 낭만주의자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유한자, 즉 무한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에 대한 해명이다. 왜 이 세계는 없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세계는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쉐레겔은 스피노자를 받아들임으로서 그 이유를 '신성의 자기현시'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이 세계는 신성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는 신성(=절대자)의 '알레고리'이다.

반면 이 과정을 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자. 의식은 반성이며 반성하는 주체(주관)는 '자아'이며 반성되는 객체(객관)는 '비아'이다. 의식의 운동은 자아가 비아를 정립·규정하는 운동이다. 즉 피히테에서 비아는 자아의 산물이다. 쉐레겔은 이러한 피히테의 자아-비아론을 이렇게 해석한다. "객관세계는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해하기 힘든가? 당시는 프랑크혁명의 영향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때이다. 피히테에 의하면 프랑크혁명은 자유·평등·사랑이라는 이념(=인간의 주관적 의식)이 사회적 실천을 통해 현실화(객관화, 비아화)한 것이다. 피히테는 이를 철학화한 것이다.

의식의 운동은 무한자의 운동과 역으로 이루어진다. 즉 무한자의 운동(='신성 즉 자연'='신성의 자연사물화')이 무규정자(신 혹은 신성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으므로)의 규정자화라면 의식의 운동의 궁극목적은 규정자들(하나의 식물, 동물, 인간 등)을 통해 무규정자의 의식에 이르는 것, 즉 규정자의 무규정자화, 다시 말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 절대자를 의식하는 것이다. 의식의 운동, 자아의 비아정립·규정도 무한한 과정이다. 즉 의식의 운동은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의식에 다다를 수는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먼저 절대자는 무한자이기 때문이다. 즉 절대자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자기를 무한히 생성해내는 운동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의식) 자체가 유한자라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의식은 무한자(=절대자)에 대한 나름의 상(像)을 만들어낸다. 무한자에 대한 의식의 결과물, 혹은 상(像)이 개념의 형식으로 나타나면 철학(=학문)이다. 감각의 형식으로 나타나면 예술(작품)이다. 즉 철학적 개념은 무한자의 상징이며, 예술은 무한자의 알레고리이다.



△ 19세기를 전후로 출간되었던 낭만주의 텍스트를 선별해서 낭만주의가 가진 현대성을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내고 있다.

쉐레겔은 '상징'과 '알레고리'를 구분해서 쓰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⁴⁾ 무한자의 운동과 의식의 운동은 모두 '알레고리'를 낳는다. 이로부터 현대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쉐레겔의 태도가 완성된다. "실재하는 것은 '알레고리' 뿐이다."

¹⁾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종교적·교리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과 상통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철학에서의 '신'은 절대적인 지식, 진리, 원리, 섭리 등 '절대성을 지니는 어떤 것'을 말한다.

²⁾ 여기서 '반성'은 독일어 'Reflexion(레플렉시온)'의 역어이다.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거울처럼 의식 밖의 대상들을 비추어서 의식 안으로 받아들이는(=투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철학, 특히 관념론 계열에서 '반성'은 외적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수동성(수용성)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다. 외적 대상을 만들어내는 능동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반성능력이 없다면 외적 대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학계에서는 이 말을 '성찰'이라고 번역한다. '반성'이든 '성찰'이든 우리말에서는 모두 '(자신의 잘잘못을) 돌이켜 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Reflexion'은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³⁾ 그런데 다른 학문과는 달리 철학은 의식(반성) 자신도 의식(반성)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의식의 역사로서의 철학사는 "우주자연에 대한 '반성의 반성'의 역사"라고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⁴⁾ 동시대인인 괴테는 양자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괴테는 '상징'을 높이 평가한다. 반면 양자의 차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알레고리'에 보다 높은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벤야민이다.

이관형
서울대 강사

연극과 웃음(1)

장르와 희극성(1)



△ Le Rire, Essai sur la signification du comique 프랑스어판

역사적으로 웃음과 희극성에 관한 논의는 비극이 그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희극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보여준 이래 이러한 흐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되었는데, 삶에 밀접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웃음과 희극성에 대해 이번 기회에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탈리아 극작가 카를로 골도니의 코메디 「로칸디아라」 번역·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조태준 필자로부터 3회에 걸쳐 본 회두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겠다.

바야흐로 웃음의 시대다. 거의 모든 사회매체가 웃음의 생산과 유포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대중은 마치 웃음의 거대한 포식자와 같다. 역(逆)대중화 시대에 웃음은 그야말로 현대성의 가장 뚜렷한 징표로서 그 자체가 정치행위이며 경제구조이고 사회징후이다. 욕망을 추구하는 대중은 언제나

지 웃음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런 만큼 남을 웃기는 능력은 지극히 왕성한 생산력을 상징한다. 또한 웃음은 정서적 자유의 표상임과 동시에 꺾박과 저항의 은유적 실체이다. 웃음의 정서적 효력은 현세적이지만, 그것이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웃음의 사회적 속성은 언제나 아방가르드적이며, '한층 본질적'이다. 더 이상 사적일 수 없는 웃음의 행사가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불행하게도(?) 웃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내내 그것의 명령에 시달려야 했다.

웃음과 웃음거리

우리는 연극과 웃음이라는 인식의 영역에서 일찌감치 '장르'라고 하는 추론 체계를 만나게 된다. 이를테면 전형적인 민속극이나 흔히 대중극의 범주에서 거론되는 희극(comedy), 소극(farce), 광대극(parade), 장터극, 불르바르 연극, 보드빌 등과 같은 이른바 '웃기(또는 웃기기)위한 연극'들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장르에 관한 것이지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¹⁾ 그러나 연극의 웃음은 결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웃음을 장르라는 제한적 범주에 한정시킨다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에 자주 등장하는 코믹 릴리프(comic relief)나 디드로 D. Diderot의 이른바 심각한 희극(comédie sérieuse), 또는 희비극(tragi-comedy)과 같은 절충주의 장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적어도 웃음은 장르에 우선하는 삶의 어떤 국면이며, 그것의 행사는 삶의 목적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웃음의 행사에는 단지 두 개의 주제, 즉, 웃음을

자아내는 사람과 웃음거리를 발견하는 사람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웃음의 발현은 이 두 주체의 정신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우리가 흔히 웃음거리라고 지칭하는 것은 골계(滑稽), 다시 말해 희극적인 것(comic)에 해당된다. 이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정신구조까지를 두루 포함한 개념으로서 웃음을 자아내는 또 다른 요소인 우스꽝스러움(risible), 공상(romanesque), 환상(fantasy) 등과 구별된다. 현상하는 것들은 그 모순 때문에, 즉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지양되고 목적은 실현되지 못한다. 이에 반해 골계는 보다 심오한 전망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현실세계에서 덕을 갖춘 인간과 그렇지 못한 패륜아의 험란한 대조(풍자)라든가, 거대한 기만과 위선을 조롱하는 지적인 힘(아이러니)이 그 예이다. 여기서 부덕과 기만, 위선은 인간성의 또 다른 본질이기에 때문에 그것은 현상 내지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즉 골계는 본질의 영역이라는 얘기다.

일상적으로 웃음거리가 즐거움과 쾌락의 원천이 되는 데에는 비교와 대조에서 오는 우월감이 작용한다. 그러나 연극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우월감은 형성되지 않는다. 배우의 실수나 공연 진행상의 뜻하지 않은 오류 따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교와 대조가 고도로 조작된 웃음거리를 통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웃음거리를 대면한 자의 즐거움은 우월감보다는 경탄스러움의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웃음거리의 조작은 과장과 축소라는 웃음의 경제성에 의해 구축된다고 한다. 천진난만함은 소박성이라는 경제적 인식에, 그리고 과장된 인물의 몸짓은 과대한 비용지출의 관념에, 등장인물이 희극적 상황에 빠진다는가, 흉내 내기, 캐리커처, 패러디, 변장 등은 다양한 현

실의 축소라는 구조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웃음의 서사구조를 비용과 절약의 관점에서 대별하기도 하는데, 농담의 쾌락은 억제비용의 절약에서, 희극의 쾌락은 표상비용의 절약에서, 유머의 쾌락은 감정비용의 절약에서 온다고 판단한다.

웃음거리의 서사성은 분명 일반적인 서사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서사의 보편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전자의 구조는 후자에 의해 의존적이다. 길을 가다 넘어진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근거는 정상적인 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연극 속에 구축된 등장인물의 희극적 전망은 보편적인 인간형을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웃음거리의 조작은 현상과 일상에 대한 보다 심오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웃음이 사회통념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이완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¹⁾ 헤겔 Hegel은 희극의 근거를 '인간이 자기가 알고 실행하는 것의 본질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는 세계'라고 규정한다.

²⁾ 웃음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 노력은 18세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개진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헤겔 G.W.F. Hegel의 「미학·개별 예술들의 변증법적 발견」과 프로이트 S. Freud의 「농담과 무의 식의 관계」, 그리고 그 유명한 앙리 베르그송 H. Bergson의 「웃음, 희극에 관한 시론」을 들 수 있다.

조태준

극작가 겸 연출가, 배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윤리적 비디오게임은 가능할까?

비디오 게임 비평(3)



△ 아무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 RPG를 표방한 게임 《언더테일》

※ 게임 《스펙옵스: 더 라인》과 《언더테일》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인 조셉 드라페(Joseph DeLappe)는 2006년 'dead-in-iraq'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드라페는 밀리터리 FPS게임(1인칭 슈팅 게임)인 《아메리카스 아미》(America's Army)에 'dead-in-iraq'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죽을 때마다 실제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이름과 사망일자를 채팅창에 입력했다. 드라페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추모이자 항의라고 설명했다. 전쟁 게임 속에서의 디지털 죽음을 실제 이라크전에서의 죽음과 연결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드라페와 함께 게임을 하던 플레이어들은 영문모를 글귀들을 채팅 창에 끊임없이 입력하던 트라페를 '트롤'로 인식하고 방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아메리카스 아미》는 플레이어들이 실제 군과 전쟁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임이다. 미 육군이 모병 흥

보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TV드라마인 《제너레이션 킴》의 등장인물 트럼블리의 경우처럼, 비디오 게임을 통해 군에 흥미를 느낀 젊은이들이 입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미 육군이 젊은이들의 입대를 권유하기 위해 과거처럼 애국심에 호소하는 대신 전쟁 게임을 통해 흥미를 자극하는 전략을 택한 것은 징후적이다. 영화나 비디오게임에서 재현되는 전쟁의 스펙타클에 익숙해진 세대에게 전쟁은 참혹함보다는 FPS 게임처럼 흥미롭고 스틸 넘치는 것으로 다가온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미디어의 영향으로 돌리는 것만큼이나 미디어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할 무책임한 태도다. 미디어는 분명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과 감각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재현의 윤리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비디오게임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디오게임은 많은 장르들이 '폭력'에 의존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임에는 명시적이던 그렇지 않던 승패나 점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어떤 행위에는 보상을 하고, 어떤 행위에는 벌점을 주는 규칙이 존재한다. 게임 속에서 적을 죽이면 점수를 얻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행위를 유도 하는 것이다.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들은 꾸준히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전쟁의 이미지를 스펙타클로 묘사하고 성공적인 전쟁 수행

의 보상으로 승리의 희열을 제공하는 한 그저 모순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들이 철저히 상업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유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장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는 작품들도 존재한다. 《스펙옵스: 더 라인》이 좋은 사례다. 이 게임은 처음에는 기존 전쟁 게임과 전쟁 영화들의 관습을 고스란히 따라가지만 이내 그것을 뒤집어 었는다. 플레이어는 모래 폭풍으로 황폐화된 두바이에 파견된 특수부대원으로서 연락이 두절된 반역 부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되면서 반역 부대가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며 주인공의 행위는 명분 없는 학살로 변모한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주인공은 PTSD로 미쳐가고, 개발자들은 제4의 벽을 넘어 플레이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당신의 행위와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비난한다. 《스펙옵스: 더 라인》에서 플레이어들은 전쟁의 스펙타클, 승리의 희열 대신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작년 9월 발매되어 한국 인터넷 상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인디게임 《언더테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나타난다. 《언더테일》은 인간과 괴물이 대립한다는 전형적인 RPG(롤플레이 게임)의 배경에서 출발한다. 플레이어는 기존 게임들처럼 괴물들을 죽이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비를 베풀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가 기존 게임들의 관

습에 따라 괴물들을 죽이면서 진행하면 게임의 중반부에 등장인물 중 하나가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심판을 한다. 이 때 이 게임에서의 LV와 EXP는 레벨과 경험치가 아니라 폭력수치(Level of Violence)와 처형점수(Execution Point)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이와 같은 《언더테일》의 재해석은 기존 게임들의 관습에 익숙해져 폭력에 둔감해진 플레이어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간혹 이러한 게임들이 플레이어의 행동을 구조적으로 유도했으면서 플레이어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단죄하려 들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정당성 없을 뿐 아니라 기만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스펙옵스: 더 라인》은 기존 전쟁 게임의 관습, 《언더테일》은 기존 RPG의 관습이라는 메타-장르적 층위들을 참조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플레이어 개개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게임의 관습들이 어떻게 플레이어가 폭력에 무감각 해지도록 만들었는지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플레이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장르와 매체 그 자체에 던지는 비판인 것이다.

김한나

영상원 졸업, 자유기고가 희망자

여자가 검을 쓰는 방법

호금전의 <대취협>

이 주의
도서관
자료
DVD & 책



△ <대취협> 홍콩 극장 포스터 ©Shaw Brothers Studio

<대취협(Come Drink With Me)>, 1965
-
감독: 호금전
제작: Weinstein Co., 2008
러닝타임: 91분
청구기호: DV 688.2 18107

김용의 무협소설을 원작으로 한 호금전 감독의 1966년 작 <대취협(大醉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영화가 가진 여러 개의 제목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것이다. 큰 '대' 자에, 취할 '취', 의 기로울 '협', 이 세 글자를 쓴 '대취협'을 직역한 제목은 '크게 취한 영웅', 혹은 '큰 취한 영웅'이란 뜻의 'Big Drunk Hero'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의 개봉 제목은 '방랑의 결투'였다. 그리고 월드 와이드 영어 제목은 '나와 함께 마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Come Drink With Me'다. 지난 2008년, Weinstein Company에서 출시한 이 영화의 DVD는 <Come Drink With Me>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영화가 시작되면, 먼저 유서 깊은 홍콩의 영화사 쇼브라더스(Shaw Brothers Limited) 로고가 뜬다. 그리고 붉은 글씨의 타이틀이 나온다. 도적들이 장군의 아들인 한 젊은 지방 관리 장푸칭을 납치하고, 그의 누이인, '금연자'라고 불리는 검객 장시엔은 남장을 한 채 장푸칭을 구하는 길에 나선다. 금연자는 마을의 한 객잔과 사찰에서 도적들을 만나 뛰어난 무술 실력을 자랑하며 그들과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금연자가 혼자 상대해서 곧바로 이기기엔 그들의 실력 역시 만만치 않다. 이때, 적절한 순간마다 그녀를 도와주는 걸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취협이다. 걸인의 행색을 하고 있지만 대취협은 다름 아닌 무공을 세운 고수다. 사찰에서 한창 칼싸움이 벌어지던 중, 금연자는 절의 지붕 위에 있다가 가슴 쪽에 독화살을 맞게 된다. 화살을 맞은 채, 숲 속에서 도망을 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금연자는 낮은 곳에 누워 있다. 그림 같은 폭포가 흐르는 풍경이 보이고, 곧 이어 대취협은 금연자를 간호한다. 손수 독을 빨아서 내뱉는 정성까지 보이는 대취협이 금연자를 보살피던 찰나, 도적들은 다시 두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다. 혼자서 다수의 도적을 주검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취협을 보며, 금연자는 그가 강호의 고수라는 걸 알게 된다. 한 편, 대취협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이자 수련 동료였던 중과 마지막 결투를 벌인다.

금연자 역을 맡은 정패페(鄭佩佩)는 첫 등장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강한 매력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정패페가 홍콩에서 인기 있는 배우로 급부상하는 데에 이 작품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각각 액션 시퀀스에서, 서로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는 도적 무리와 금연자의 칼싸움으로 인해 스펀스는 살아있다. 이 영화에서 호금전은 연출뿐만 아니라 미술감독을 맡기도 했는데, 모두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산사의 내부 장면에서 드러나는 프로덕션 디자인은 정교하다.

<대취협> DVD의 서플먼트로는, 홍콩영화 전문 평론가이자 각본가인 베이 로건(Bey Logan)과 정패페의 코멘터리 오디오가 수록되어 있다. 정패페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며, 최근에 만 <대취협>을 열 번 이상 봤다는 이야기로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당시 만 19세였던 그녀는 이전에는 오디오를 보지 않고 열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었지만, 이 영화를 위해선 오디오를 봤다고 한다. 오디오에 합격한 그녀는 특별히 쿨 후 교육도 받았기에 대역을 많이 쓰지 않고도 액션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 베이 로건은 이 영화의 화면이 당시 다른 쇼브라더스 영화와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촬영감독이 일본인(타다시 니시모토)인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한다. 로건은 폭포 같은 풍경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배경 그림이 오히려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효과를 준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60대가 된 정패페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대취협>이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는 건 즐거운 일이다. 금연자는

싸울 줄 아는 여자다. 그녀는 남장을 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혈육을 구하기 위해 칼을 쓴다. 코멘터리 오디오에서 정패페는 <대취협>이 제작되던 당시, 홍콩의 많은 무협 영화 속의 여성 인물들이 남성보다 강한 투사나 검객의 모습을 했던 이유가, 여자 배우들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요소였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대취협>의 금연자는 단순히 예쁘고 싸움도 잘하는 '여전사'나 '여검객'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신념에 기반해 매일 싸워나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대취협>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난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속 여자들 중, 금연자만큼 주체성을 가진 인물을 보는 건 왜 이리도 어려울까. 무협 액션극의 히로인까진 아니더라도, 한 남자의 아내 혹은 연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역할이 분명한 여성 캐릭터를 만나고 싶은 관객으로서의 욕망은 좀처럼 충족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대취협>을 개봉 당시 새로운 스타일의 무협 영화였다는 평가를 넘어, 뚜렷한 성격과 자아를 표출하는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현 기자
rubysapphire@gmail.com

우주의 사과, 사과의 우주

다니카와 순타로 「사과에 대한 고집」



△ 다니카와 순타로 「사과에 대한 고집」 한국어판 표지

「사과에 대한 고집 : 다니카와 순타로 시와 산문 1952-2015」, 2015
-
다니카와 순타로 지음: 요시카와 나기 옮김
:신경림 감수
출판사: 비제
청구기호 : 830.81 219사
석관동도서관/5층 일반자료실

여기 '힙'한 할아버지가 있다. 다니카와 순타로(谷川俊太郎). 올해로 85세인 그는 <철완 아톰>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제곡 가사를 쓴 장본인이다. '다니카와(계곡에 흐르는 강물)' 라는 앱이 있다. 말 그대로 계곡에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넣고 다니카와의 시를 낚는 게임이다. 스누피가 등장하는 만화 <피니츠>의 일본어 번역가이기도 한 그는 시를 쓸 때는 아이패드를 즐겨 사용한다. 아, 맞다. 그는 사실 시인이다. 시인일 뿐이라. 셀러브리티이기도 하다. 도쿄 온천에는 그가 일을 한다는 컨셉으로 연출된 방이 존재한다. 제목에 자기 이

름이 들어간 다큐멘터리도 찍었다. 일본에 시로 돈을 벌며 먹고사는 직업 시인이 딱 한 명 있다는데 그게 바로 1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시집이 몇 권이나 되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독자층은 동화를 읽는 어린이부터 양로원의 90세가 넘는 노인들까지 아우른다. 문학 평론가 김용교는 「하늘의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에서 "이 글에서 수십 권이 넘는 그의 시와 200여종이 넘는 그의 작품을 다 소개할 수는 없다. 시집, 시나리오, 라디오 드라마 대본, 희곡, 동화, 가요, 르포 등 거의 모든 장르를 쓰고 있는 그의 세계를 제한된 지면에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 말했다.

「사과에 대한 고집」은 이 늙고 젊은 시인의 시력 63년을 기념해 1952년부터 2015년 최근작까지 그의 시와 산문 60여편을 모은 시선집이다. 시만 수천 여 편에 달하고 그 외 온갖 장르에 걸쳐져 있는 그의 작품 세계를 망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이 얇은 책 한 권이 그의 시 세계를 전부 담고 있으며 유머러스하고 이해하기 쉬운 시들로 가득 차 있으니 꼭 사 읽으시라는 대형 서점 페이스북 관리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물론 폐북 지기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다니카와 순타로의 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시는 읽기 쉽고 재미있다는 평을 이끌어낸다. 게다가 이 시선집이 그를 다 담고있는 것은 불가능할 망정 가장 닮아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앞서 다니카와를 '힙'한 할아버지이자 시인이

라 칭했다. '힙'이란 무엇인가. 힙의 정의가 모호한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힙이 정의하기에는 너무 빠른 어떤 움직임에 가깝기 때문이다. 힙은 동적인 단어이며 그 에너지는 시간성에서 발현된다. 힙은 사적인 유니크와 모두의 유행을 확보하는 모순 그 자체다. '당황해서 뽀 / 우리 같이 뽀.' 하는 어린이를 위한 동시인 '방귀 노래'와 갓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 생명보험은 얼마짜리 들었어?" 묻더니 답을 듣고 태어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탄생' 같은 시가 함께 있다. 연시인 '부탁'은 '내 아픔은 나만의 것 / 당신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말하고, 유명한 살인마인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빌리 더 키드'가 그 곁을 차지한다. '어디2 - 교합'이나 '미래의 아이' 같은 철학적 사유가 그대로 드러난 작품은 또 앞과는 다른 정서를 관찰한다. 말 그대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향연이다. 자기 이름을 딴 앱을 만드는 85세 노인이나 아이패드로 쓴 시집 같달까. 그의 시 세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이 작은 것은 아주 사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 키웠던 개, 생명보험, 미키마우스, 방귀, 사과 같은 것들. 이 작은 것들을 통해 그는 구멍을 뚫는다. 시인은 산문 '바람 구멍을 뚫다'에서 "시는 지구에 있는 술한 언어들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의식에 바람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부는 바람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바람일지도 몰라요"라 썼다. 이 구멍은 세상 온갖 물상을 넘어 우주로, 무려 이승과 저승으로까지 확장될 가

능성을 품은 그런 구멍이다. 사적인 존재와 보편의 존재가 합일되는 모순의 순간이다.

다니카와는 구멍을 뚫는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를 유명하게 한 시인 1952년작 '20억 광년의 고독'의 마지막 연은 이렇다. "이십억 광년의 고독에 / 나는 무심코 재채기를 했다" 순간 우주까지 확장되었던 우리의 의식은 작기 그치지 않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존재와 우주에 대한 물음이 겨우 한 인간의 재채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버라이어티한 시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우주적 상상력과 경쾌한 시어, 그리고 유머러스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웃음기는 경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에서 기인한다. 50여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견뎌 다니카와와 그의 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력 덕분이다. 그렇게 시인의 사과를 지나 나의 재채기로 돌아왔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무심코 간지러운 코를 쓱 훑는다. 아, 이 얼마나 힙한지.

이원섭 기자
onesublee@gmail.com

퀴어문화축제 슬로건 이슈에 부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학교의 건전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나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의견을 담은 글 혹은 기적을 newskarts@gmail.com로 보내주세요. 지면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학생
칼럼

1969년 6월 28일 이른 아침, 경찰은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게이 커뮤니티가 모였던 그리니치의 동네 주점인 스톤월(Stonewall)을 급습했다.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부적절한 성행위'라는 죄목 하에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톤월 항쟁은 반복되는 급습에 지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항하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 첫 게이 프라이드 행진이 시작됐다.

1973년, 미국임상심리협회는 DSM-2의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homosexuality)를 삭제했고, 프라이드 행진은 미국 전역 주요 도시들로 범위를 넓혔다. 스톤월 항쟁이 일어나고 난 지 10년 후에도, 한 동성애 혐오자가 커밍아웃한 게이이자 동성애자 권리증진에 힘썼던 정치인 하비 밀크(Harvey Milk)를 살해하는 등 일련의 공공연한 위협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1979년, 워싱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레즈비언과 게이의 권리를 요구하는 첫 대국민적 행진을 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이 행진에서 처음으로 국가적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얼마 후, 게이 인권 운동은 에이즈(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의 결투가 되었다. 이에 맞춰 에이즈의 공식적인 질병 분류와 문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기존의 혐오 세력은 통계 자료를 왜곡해 의도적인 차원에서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형성시켰다.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여겨져 강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인권 단체들의 로비력, 활동가들의 기획력과 함께 거리로 나선 수많은 개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빚어낸 결과였다.

2015년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역사적인 해다. 이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음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진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뒤쳐져 동성혼 합법화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015년에야 비로소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동성혼 인정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이는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집회인 퀴어문화축제는 어떤 지점에 서있을까. 어떤 지점에 서있어야 할까.

퀴어문화축제는 여전히 혐오 세력과의 갈등 등으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과 대구에서 매해 열리고 있다. 2014년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Love Conquers Hate)"였다. 해당 문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권 캠페인 재단(HRC, 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이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에 쓰인 문구이기도 하다. 이 구호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내용의 해석이자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Amor omnia vincit)"라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Virgil)의 시구를 활용한 것이다. 이어 2015년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레볼루션"이었다. 이 슬로건은 46년 전 맨해튼 중심부에서 처음 울려 퍼졌던 구호인 "분명히 말하라, 크게 소리쳐라, 게이는 좋다, 게이는 자랑스럽다(Say it clear, Say it loud. Gay is good, Gay is Proud)"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최근, 곧 다가오는 2016년 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은 퀴어문화축제위원회가 공모를 통하여 채택

한 "QUEER I AM, 우리 존재 파이팅!"이다. 그런데 슬로건이 발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었다. 몇몇 이들이 선정 근거에 대한 변론을 요구하자 위원회 측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2014년과 2015년의 슬로건은 "동성애자 이외의 성소수자를 소외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SNS를 통해 "해당 슬로건은 전선의 후퇴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계 인사들의 이해순위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한참 밀려나 있었다. 그들에게 성소수자는 일단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보다 가시적이다. 우리에게겐 기독교우당의 폭력적인 발언을 제지할 방도 역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막막히 그런 혐오 발언을 목격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6년 퀴어문화축제 슬로건에 대해 "이러한 억압과 혐오에도 굽히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미가 담긴, 짧고 강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하기 힘든 분위기다. 심지어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오픈리 게이(openly gay)에 대한 은근한 배척이 있다. 또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는 커밍아웃을 두려워하여 일반스타일²과만 데이트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흔하다. 한 시스젠더 레즈비언 여성과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바이섹슈얼이란 사실을 '이쪽' 사람들을 만날 땐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라는 말을 들었다.

성소수자들이 직접 사회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선, 성소수자의 가시화가 우선순위에 있다. 커밍아웃을 하자!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어, 너도 그때 눈치 보고 있었어?"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

¹⁾ 이 문장은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에 의해 "Love conquers all"로 처음으로 번역, 인용되었다.

²⁾ 이성애자처럼 보이는 스타일을 지칭하는 은어.

손수영

무용원 무용이론과 예술경영전공

커버 스토리



△ 크누아예경포럼

'크누아예경포럼'은 예술경영 학술연구를 지향하는 동아리다. 최준식(무용원 이론과 예술경영 전공 전문사) 회장은 '크누아예경포럼'을 지난 4월 22일 교학처로부터 승인받은 신설 동아리라고 소개했다. 이 동아리는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총 12개의 정식 동아리 중에서 보기 드문 학술 동아리이며, 24명의 회원과 함께, 지난 3월 21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경영 관련 자체 세미나 진행, 예술 현장 탐방, 동·하계 포럼, 그리고 학술대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 동아리는, 예술경영과 인접한 타 분야의 학문도 탐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동아리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 동아리 내 연구를 통해 현업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현장 실무를 토대로 한 이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동아리의 올해 목표는 예술경영학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전문사 학생들이지만, 현재 예술사 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첫 대의 활동으로 '2016년 한일중대 학생 동아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크누아예경포럼'은 이 행사를 통해 "해외 예술 전공 대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동아리 회원들의 시야

를 넓히고, 외국인들에게 우리 학교를 알리고자 한다. 오는 7월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대상 통계캠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자신이 이끄는 동아리에 대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최준식 회장은 말한다. 월별 정기모임 역시 계속될 예정이니 관심이 있다면 '크누아예경포럼'의 문을 두드려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

발행인 김봉렬
주간교수 우광혁

편집국장 이상연
부편집국장 문지희

사진부장 신성현

대학취재부장 서안
대학부 백석
대학부 금홍
대학부 김소희
대학부 박굴

문화부장 안신호

문화부 한혜란

사회부장 권라임

사회부 서동완

학술비평부장 정의현

객원기자 영준

편집부장 김민지

편집부 강은주

편집부 박주미

편집부 최희수